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가족 모두 하하호호

www.visitkorea.or.kr

떠나요, 여름 속으로 빠져요, 체험 속으로

해정인전부/국토해양부/농립수산시품부/환경부/ 산림청/한국농이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코레일/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정보화 마을 중앙 협회와 함께합니다



여름특집 기볼만한 곳

우수 테마여행상품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토대장정

인빌체험 불타는 여름을 잡아라



갯벌생태여행

여름 휴가 보내기 좋은 농어촌 체험 마을



여름휴가철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캠페인

테마가 있는 자동차 야영캠핑



북한산둘레길 앱 개통기념 이벤트



숲 체험





2012.08.01/08 NO.170 korea.kr/gonggam









지문・사진 등

소중한 나의 아이 • 가족

「사전등록」으로 지켜주세요!

소중한 가족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등록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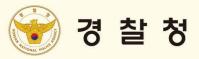
아동 등이란?

이번 사전등록 할 수 있는 아동 등이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입니다.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대 특별·광역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현장등록 전담반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 (문의 070-7882-9551~6)

또한 『안전Dream』 (www.safe182.go.kr)과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지구대 • 파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중동붐은 새 성장동력원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아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한 소녀들은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헬로'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이다. 이 중 한 학생은 사이니의 사진이 인쇄된 가방을 들고 다닌다 아부다비에서는 한국의 날 행사를 갖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한국문화를 소개한다며 한복을 입고, 다도(茶道)도 선보인다. 한국문화에 흠뻑 빠진 젊 은이들의 모습이다.

과거 오일쇼크 이후 등장한 1970, 80년대의 제1차 중동붐과 마찬가지로 제2차 중동붐도 배럴 당 1백 달러가 넘는 고유가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과 파급효과가 크게 다르다. 1차 때 는 단순히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중동은 국가건설에 매진했다 에너지 수입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우리도 중동 건설 진출로 대응했다

21세기의 제2차 중동붐은 포괄적이고 다각적이다. 건설 및 플랜트 시장에서도 노동력이 아닌 기술력이 중시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담수화 시설, 병원 등 기술을 동반한 플랜트가 주력 분야 가 됐다. 여기에 자동차, 휴대전화 등 제조업 제품이 수출품목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영등의 의료 커피전문점 등 프램차이즈 게임 및 콘텐츠 산업 등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 출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K팝. 드라마 등의 우리 문화가 중동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중동 지역이 '블루오션' 으로 급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건설 수주와 공산품 수출시 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석유 및 가스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한 산유국들은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교류할 대상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국브랜드 업체들이 중동 지역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제공하는 곳은 단연 중동이다.

1970 80년대 제1차 중동불이 노동력 제공 위주였다면 현재의 제2차 가치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 중동붐은 원자력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 기술을 동반한 플랜트가 주력 분야이다 여기에 K팝 등 우리 문화가 중동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진출과 협력이 제2 중동북의 새로운 코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 중동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교통 및 통신이 크게 발달한 글로벌 시대에 석유에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예견했다.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산업다각화' 정책 을 대부분 추진해 왔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중동 지역도 우리의

때문에 과거와는 차별화한 적극적이면서 효과적인 원-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과 가격 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주를 유지해 가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적의 압송에 왕실전용기를 내준 UAE와의 '전략적 돗반자관 계를 다른 나라에도 확대해야 한다.

중동 신세대의 마음을 파고드는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적 그리고 인적교류도 늘려야 한다. 이 들 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전문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진출과 협력 이 제2중동북 대책의 새로운 코드가 되어야 한다. 🕝

Contents 170 ± 2012.08.01/08 § 22 27 1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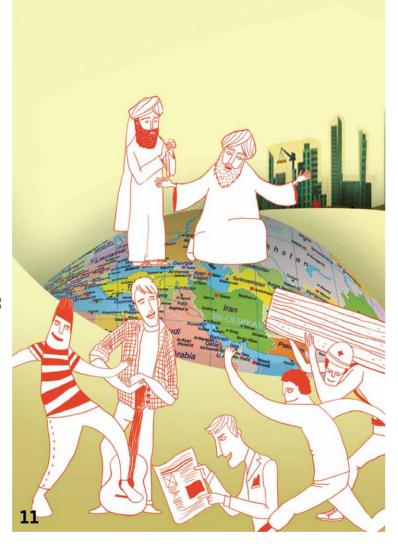


표지 이야기 | 아랍에미리트(UAE) 후자이라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두 중동인이 신기루인 듯 바라보고 있다. 이 거대한 시설물은 두산중공업 이 2001년 3억5천만 달러에 수주해 2003년 완공했다. 해수담수화 플 랜트는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한국이 이제는 영 역을 더 넓혀 제2중동붐을 일으키며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



기술력과 한류 문화 날개로 제2중동붐 타고 새로운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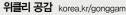
뜨거운 모래바람과 싸우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도로와 건물을 지었 다.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배경이 된 제1중동붐이 다. 최근 고유가로 중동지역에 자금이 몰리며 조성되고 있는 제2중동 붐,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등장하고 있 다. 이라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건설 공사를 따낸 건설업계, 사 상 최초의 원전수출이기도 한 UAE 원전수주, 해수담수화기술 수출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우리나라의 중동 진출은 전자정부, 의료서 비스,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해외 건설인력 부족 현 상까지 가져오고 있다. 젊은 그대들, 한번 도전해 봄 직하지 않을까. 아버지 세대의 경험이 그대들을 인도할 것이니.



- 01 Reader & Leader | 중동붐은 새 성장동력원
- 12 제2중동붐 | 新실크로드… 중동에 한국의 미래 있다
- 14 건설·플랜트 | 열사의 땅에서 한국경제 '붐'을 심었다
- 16 에너지 코리아 바람 | UAE 심사통과로 한국형 원전 건설 '순풍'
- 18 전자정부 노하우 전수 | IT코리아의 함… '디지털 실크로드' 놓다
- 20 보건협력 | 보건의료도 한류… 새 블루오션 떠올라

- 22 한류 문화콘텐츠 | 안방 파고든 한류 덕에 한국 이미지 '굿'
- 24 지원정보 | 경기침체 '무풍지대'… 중동시장을 잡아라
- 26 중동의 차세대 리더들 | "한국 경제성장 노하우 배우러 왔어요"
- 28 일자리 창출 | '기회의 땅' 중동으로 눈을 돌려라
- 30 전문가 제언 | '걸프협력회의국' 편중 벗어나 다변화해야





발행일 2012,08,01/0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가무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시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 04 공감라운지 | 2012 생활공감 녹색기술 국민제안 공모
- 06 태권도 한류 |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돼야"
- 08 태권도 한류 | 양팔 없는 미국 태권도 유단자 쉴라 래지위츠 씨 "태권도 덕에 남에게 희망 주는 사람됐죠"

녹색여행

- 42 겉고싶은 길 | 길섶 들꽃과 친구 되어 볼까
- 44 기차와 함께 | 시골로 가는 추억여행… '레일그린'이 뜬다
- 46 책과함께 | 올 여름엔 도서관으로 휴가가자~
- 48 휴가철교통 | 잘 쉬고 충전해서 돌아오세요~
- 50 감성여행 파주 화석정과 임진강





- 32 4대강 새물결 | 태국 치수사업에 '4대강 드림팀' 도전
- 34 4대강 새물결 | 영산강 저류지 위탁관리 맡은 임성훈 나주시장 "태양광 발전·시민여가시설로 쓸겁니다"
- 36 공감화제 '용감한 녀석들', 이젠 '기특한 녀석들'
- 38 공감현장 | 카툰, 표현의 자유를 그리다
- 40 여수엑스포 | 외신들이 뽑은 '톱 5' 볼거리
- 54 공감소식 | '에너지 절약' 꼬마 전도사들
- 56 IT 오디세이 | 기계의 반란… '매트릭스 세상' 실현되나
- 58 한식을 생각한다 | 갯장어는 여름 보양식의 '황제'
- 59 역사인물 읽기 | 겸손으로 '신분의 벽'을 넘다
- 60 화제의 책 | 〈북극 허풍담 1~3〉
- 61 공감 카툰 |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 62 공연소식 | 〈윤동주 달을 쏘다〉 별 하나에~ 시인과 뮤지컬이 온다
- 63 디딤툰 | 글로벌 에티켓 ③ 콸콸콸
- 64 소통과 공감 | 빵집 아저씨! 문 안닫아요?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6일(목) 오전까지 gonggam @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영원한 119 아저씨 고맙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을 선정해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후원해 주신다는 전상기 소방위의 기사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 봉사를 10년 넘게 하고 계신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을 시기에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 할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옆에서 지켜보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시는 전상기씨를 보니 제 마음까지 흐뭇해집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화(40·주부·경남 양산시 소주동)

학생창업처럼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는 사회가 오길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취업이냐, 대학진학이냐를 계속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창업에 관한기획특집을 접했습니다. 창업 성공 주인공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대학진학·졸업·유망한 직장 취업이라는 틀에 짜인 인생이아닌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회가 빨리 오길 희망해 봅니다. 더불어 중학교 때부터 학생, 청년 창업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유영되었으면 합니다

김미숙(40·공무원·전남 영광군 영광읍)

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 이야기 많이 다뤄주길

국립중앙도서관의 '찾아가는 독서문화 운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 〈베리어프리〉란 영화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뿐 아니라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접근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 다행입니다. 특히 8월 국립중앙도 서관에 장애인 도서관이 개관되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서 소외됐던 장애인들이 그간의 설움을 모두 펼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을 통해 장애인 복지와관련된 반가운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한솔(27·학생·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수엑스포 성공적인 마무리 기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여수엑스포도 막바지로 접어드네요. 이 제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엑스포를 관람하게 될 텐데 평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전시 내용을 현행 교과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산지식을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수엑스포가 아이들에게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바다를 통한 인류의 화합과 상생도 배워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정렬(60·교사·부산 중구 보수동)

독자 인터뷰

"다。局上的四个层上级的小는。10月1时10日的一个时间不知此"

김태혁(28·대학원생·서울 관악구 봉천동)



김태혁씨는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평소에도 신문이나 잡지, 책을 가리지 않고 많이 읽는 터라 〈위클리 공감〉도 매주 꼼꼼하게 읽어본다고 한다.

특히 〈위클리 공감〉의 인터뷰 기사가 힘이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비싼 등록금에 학업을 계속하기 벽찰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이야기를 읽으며 힘을 얻는 다고 한다. 얼마 전 국민추천포상을 받은 사람들 인터뷰도 감명 깊 게 읽었다며, 뉴스 단신으로만 접했던 사람들의 사연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한다.

169호에서 인상 깊은 기사는?

"기획특집 기사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요. 제 또래 '사장'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줄 한줄 읽으면서,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본받을 만한 점을 메모해 두기도 했어요. 요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읽었죠.

연재되는 여수엑스포 기사도 챙겨보고 있어요. 폐막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여수 가려고 티켓을 사뒀거든요."

앞으로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얘기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위클리 공감)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얘기가 좋거든요. 크게 주목받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 인터 뷰도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정보들도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네요. 매주 문화공감 등을 통해서 공연, 전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림

□ 2012 생활공감 녹색기술 국민제안 공모

농촌진흥청이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생활공감 녹색 기술은 일상생활의 주변에 있는 기술 중에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국민 생활과 연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출품작들은 효율성, 현실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자 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대상 | 전국민

응모주제 |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 및 유통 농업인 복지 및 농촌환경 개선 등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점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포함 총 5명 시상

접수기간 | 8월 8일까지

제출방법 | 농촌진흥청홈페이지-알림판-국민제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제안—공모제안 **우편**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사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31-299-2937 팩스 031-299-2952

문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책과 만나는 독서 UCC 공모전

국립중앙도서관이 책, 독서, 도서관과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디지털 도서관 이용 경험 소개나 독서 관련 에피소드, 책의 진화 등이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 의도에 맞춰 디지털 도서관 체험기, 디지털 도서관 백배 즐기기 등의 구체적 콘셉트로 접근하면 수상에 더 유리하다. 제출 작품은 1인(팀) 1작품으로 제한되며 팀은 4명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동영상의 분량은 1분 이상 5분 이내, 1백MB 이하면 된다.

응모대상 | 도서관을 사랑하는 공모 희망자 누구나

응모분야 \parallel 실사 부문/ 비실사 부문(인포그래픽스, 애니메이션, 사진, 만화 등)

응모주제 | 도서관, 독서, 책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

접수기간 | 8월 30일까지

제출방법 | 공모전사이트(contest,nl.go,kr)에 온라인 접수

문의 | 공모전 운영 사무국 ☎02-322-7005

독자엽서 당첨자

강정희·서울 노원구 월계 등 권미영·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김병국·광주 북구 중흥동 김보경·강원 춘천시 석사동 김혜숙·대구 북구 관음동 박정준·경남 양산시 물금읍 박주열·서울 광진구 구의동 설유이·광주 광산구 월곡 동 송국화·전북 순창 군 순창읍 신유진·인천 연수구 옥련동 양서희·전북 장수군 장수읍 유종민·경기 부 천시 원미구 상동 윤근숙·경기 시흥시 조남동 이길병·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슬비· 광주 북구 중흥3동 임세라·인천 연수구 연수동 전종욱·경기 군포시 산본2동 조명 현·광주 북구 우산동 조세현·부산 수영구 수영동 채규정·전북 군산시 개정동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16일 오전까지 ji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i

- 2. 산유국이 석유를 팔고 받은 달러. "중동의 0000를 잡
- 4. "너흰 바다로 피서 가니? 나는 OOO에서 책 읽으며 휴가 ㅂ내다"
- 6.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8.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과 협박 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 'OO과의 전쟁.'
- 10.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굵은 실타래나 막대 모양의 물질.

세로

- 1.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운동종목.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보다다 다이내믹한 스포츠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하고 있죠.
- 3. 책, 논문 등의 첫머리에 간략하게 적은 글.
- 5. 예전에, 시문(詩文) 등을 따져보면서 잘된 곳에 치던 동그라미. 또는 본문의 위쪽에 밝히는 주해나 참조.
- 7. 건강을 위해 하는 체조. 하나! 둘! 셋! 넷! 그 신나는 구령 소리 기억나시죠? 국민체조 전에 있었던 체조.
- 9. 불볕더위. "연일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번 OO은 8월 중 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Weekly 공감) 168호(7월 1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폭염 4주말농장 6 벌집 8 휴양림 9 호숫가 **세로** 2 염주 3 갯벌 5 장조림 7 집중호우 8 휴가

〈Weekly 공감〉 16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세준 ·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임새롬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박지영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권기옥 ·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김두래 · 전남 광양시 금호동





시원한 발차기를 하는 당신은 올림픽 꿈나뮈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참가자들이 7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에서 품새 시연을 하고 있다.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돼야"

무주·서울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성황··· 런던올림픽서 인기몰이 기대

33개국 청소년 2백10명이 참가한 2012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가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와 서울에서 개최됐다. 2012 런던올림픽을 앞 두고 열린 이번 청소년태권도캠프는 2013년 9월 결정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종목 재조정을 앞두고 마련된 태권도 해외홍보의 장이기도 했다.

□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 전하고 싶어하는 필리핀의 제럴린 로즈 만디아 카스틸로(16) 양, 태 국태권도협회의 고아원생 수련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를 배우 고 있는 위치트 르앤고라(16) 군과 수파트라 멍문(16) 양. 재스민혁명 바람이 불었던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의 태권소녀 사라 대드(17) 양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가슴 속에 같은 태권도의 꿈을 품은 세 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2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가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동안 전북 무주와 서울에서 개최됐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에는 세계 33개국 태권소년·소녀 2백10명이 참가해 전문 지도자들로부터 집

중적인 품새, 겨루기 지도를 받으며 태권도 종주국의 진수를 맛보 았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축하메시지

캠프 참가자들은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OVEP)의 일환으로 베 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태진 선수와 베트남 최초의 올림픽 메 달리스트인 쩐 히예우 응안(여·시드니올림픽 은) 씨로부터 생생한 올림픽 도전담을 들었다. 또 양팔 없는 여성 태권도 유단자 쉴라 래지위츠 씨의 특별강연에서는 태권도를 통한 희망 찾기에 감동받 기도 했다.

이 밖에도 캠프 참가자들은 7월 21일 전주한옥촌을 방문해 한 지공예, 전통혼례, 풍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으며, 2012 런던올림픽 개막 일주일을 기념해 7월 23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 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태권도 시범과 격파 이벤트를 펼쳤다.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는 지난 3년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부터 청소년들의 올림픽 정신을 함양하고 스포츠와 문화의 교류 를 통한 화합이라 올림픽 목표 달성에 진일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아왔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이번 캠프 개최를 맞아 "모든 참가자가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올림픽 가치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편, 각국의 젊은이들과 우정을 쌓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배종신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새로이 세계태권도연 맹에 가입한 국가의 청소년들도 캠프에 참가했다"며 "해를 거듭할 수록 청소년 건전육성과 가치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9월 IOC 총회서 탈락 종목 결정

이번 캠프는 내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IOC 총회에서 의 2020년 올림픽 핵심 종목 결정을 앞두고 마련된 태권도 해외홍 보의 일확이기도 하다.

IOC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현재의 26개 종목을 1개 줄여 25개 핵심 종목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어떤 종목이 탈락할지 현재 까지 알려진 바 없으나 태권도, 철인3종, 근대5종, 복싱, 승마 등이 탈락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성과 공정성인데, 경기로서의 태권도는 경기진행 방식과 판정시비로 인해 '판정이 애매하고 박진 감 없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다. 게다가 투기종목인 가라테(일 본)와 우슈(중국)가 신규종목 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내 태권도 관계자들 사이에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에서 빠질 것이란 '위기설'까지 등장했다.

2020년 올림픽 종목 선정의 시작은 사실상 이번 런던올림픽이 다. 런던올림픽이 끝난 뒤 2013년 열리는 IOC 프로그램위원회의 평 가(1월)와 IOC 집행위원회(2월)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런던올림픽이 태권도의 올림픽 잔류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등장 함에 따라 런던올림픽 태권도 종목은 전자호구 도입, 비디오 판독, 경기장 축소란 큰 변화를 맞았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들이



입게 될 전자호구는 몸통 보호대에 타격 정도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센서가 달린 선수들의 경기용 양말이 닻으면 압력의 세기에 따라 득점이 인정된다.

비디오 판독 제도도 판정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장 중앙과 사각지대를 찍는 5대의 카메라와 경기장 위에서 전문 인력이 촬영하는 6대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즉 각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태권도 경기장은 지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10×10미터로 축소 된 데 이어 런던올림픽에서는 8×8미터로 더욱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판정논란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태권도 경기에서 시비를 줄이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 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 '태권도원' 2013년 9월 개장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도 있어 왔다. 문 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지난해보다 2.7퍼센트(2백30억) 증가한 8 천6백34억원의 정부 재원을 체육 분야에 투입하며 "태권도의 올림 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국제적 저변을 확대하고 우호세력을 확보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29일 전북 무주에 조성되고 있는 '태권도원'의 건립 현장을 방문해 건립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 고 태권도 경기장 건립 공사 상량식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는 '태권도원'이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전파의 중심지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2009년 착공한 '태권도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IOC 총회 즈음한 2013년 9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43퍼센트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글·박경아 기자

양팔 없는 태권도 유단자 미국인 쉴라 래지위츠 씨

"태권도 덕에 남에게 희망 주는 사람됐죠"

지난 7월 19~24일 전북 무주와 서울에서 열린 2012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었다. 양팔이 없는 미국의 여성 태권도 유단자 쉴라 래지위츠 씨다. 태권도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그는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양팔 없는 태권도 유단자 쉴라 래지위츠 씨는 태권도를 통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말했다.

●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 이렇게 많은 이와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거든요."

지난 7월 22일 '2012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4일째 행사가 열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체육관에서 만난 미국의 여성 태권도 유단자 쉴라 래지위츠(33·미국) 씨. 푹푹 짜는 여름더위에 33개국에 서 온 청소년 2백여 명 앞에서 품새 시범을 보이느라 래지위츠 씨의 도복은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엔 기쁜 미소가 가득했다.

짧은 금발, 발그스레한 볼, 소녀 같은 인상의 래지위츠 씨는 양팔 없는 장애인이다. 의사는 그가 태어난 지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살긴 했지만, 열 살이 될 때까지 큰 수술을 열 번이상 받아야 했다. 선천적으로 무릎뼈도 없어 중학교 때까지 금속보조장치에 의존해 걸어야 했다. 그런 그가 2007년 태권도에 입문한 이후 2010년 세계태권도연맹이 공인하는 유단자가 됐다.

그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Taekwondo: Unity of Mind, Body and Life(태권도: 정신, 신체, 그리고 삶의 일치)〉에 담겨 2011년 12월부터 미국 전역에 방송되어 그는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 2월에는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처음 찾아 국기원을 방문하고 청소년들에게 강연도 했다.

한국서 시범… 장애 극복 담은 다큐 미국서 방송

래지위츠 씨는 이번 청소년태권도캠프에도 초청되어 특별강연과 품 새 지도 등을 하게 됐다. 품새란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놓은 동작을 말한다.

"전 태권도의 여러 동작 중 품새가 가장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 좋거든요."

래지위츠 씨는 품새 지도 전날인 7월 21일 무주리조트에서 자신 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태권도를 통 한 희망'을 이야기해 청소년태권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많은 스포츠 가운데 왜 태권도를 선택했을까. 레지위츠 씨는 "자신을 지키고 연마할 수 있는 무술을 찾았는데, 발을 많이 사용하는 태권도가 적합해 보였다"고 말했다.

발을 많이 사용하는 태권도는 뼈에 이상이 있고 근력이 약해 걷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그에게 결코 쉬운 무술이 아니었다.

"점프가 가장 힘들었어요. 또 오른쪽 다리가 약해 균형 잡기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짝살짝 점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균형 잡기도 좋아졌어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에 제 사 범님이 공격법이나 자세에 대해 다르게 지도하신 부분도 있지만요."

처음에 그에게 손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래지위츠 씨를 5년간 지도해 온 브루스 맥코이 사범은 할 수 있다며 독려했다고 한다. 래지위츠 씨는 현재 돌려차기 등 멋진 발기술은 물론, 손으로 송판 격파도 할 수 있다. 봉도 자유롭게 다루고 쌍절 곤까지 돌린다. 도복과 호신장비 착용도 발가락을 이용해 스스로 해냈다

청소년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상담사로 일해

래지위츠 씨는 집에서도 스스로 생활한다. 입과 손을 이용해 조리를 하고 타이핑을 친다. 인터뷰를 하며 기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도 혼 자서 했다. 핸드백을 열고 명함케이스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주 었다. 래지위츠 씨 명함에는 쌍절곤을 든 그의 사진이 들어 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많은 전화와 이메일이 그에게 왔다고 한다.

"그런 반응을 접할 때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 나 하는 생각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 수술비, 치료비 때문에 주변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자라면서 난 다른 이들에게 어 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태권도를 만나면서 그 방법 을 찾게 된 거예요. 태권도 덕분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 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제가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 달았어요."

그는 현재 태권도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매사추세츠 주 정부기관에서 청소년 학대 및 폭력 피해자들의 정신 치료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의 경험담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희망을 저하고 있다.

래지위츠 씨가 이렇게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사랑 덕분이기도 하다.

"제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딸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셨어요. 보



2012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에 참가 중인 래지위츠 씨의 발차기 시범.



래지위츠 씨가 2012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에서 33개국 청소년들에게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호해 가며 키울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키울지 고민하다 두번 째를 선택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저 혼자 힘으로 살 아야 하니까요. 제가 독립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남들은 이해를 못 하기도 했지만 제 부모님은 저를 장애가 없는 두 언니와 똑같이 대해주시며 독립정신을 북돋워주셨어요."

"불가능이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일 뿐"

그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불가능이 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일 뿐이다(The impossible only takes little longer)." 래지위츠 씨는 이 말을 지금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래지위츠 씨는 내년 2월 2단 승단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래지위츠 씨는 태권도를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그에게 태권도는 많은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기회였고, 자신을 알리는 창이기도 했다. 태권도에서 새 삶을 찾은 래지위츠 씨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이와 꿈과 희망을 나누게 될 것이다. ❻ 글·박경아기자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계획 예고

2012년 7월~12월 사이에 공개모집하는 정부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처 명	직 위	보직가능 형태	임기만료 시 기	공식공고 시 기	연 락 처	
국 무총 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2.12월	'12.10월	02-2100-216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2.11월	'12.7월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	학예연구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_	'12.7월	02-3704-926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2.7월	'12.11월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2.12월	'12.9월	02-2023-7058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_	'12.8월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_	'12.8월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일반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13.1월	'12.7월	042-481-4042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아시아 · 태평양연구부장	특정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_	'12.8월	02-2100-7145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특정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_	'12.8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장	일반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12.9월	'12.9월	02-2110-5052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_	'12.7월		
	홍보기획담당관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2.11월	'12.10월		

[응시자격] 고위공무원 기준이며, 괄호는 과장급 기준임

하근

- 석사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10년(과장급: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2년) 이상인 자
- 박사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과장급: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과장급: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2년) 이상인 자
- ※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과장급: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4급(상당) 공무원 또는 5급(상당) 4년 이상)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이에서 4년(과장급·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과장급:2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과장급: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실무자급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보수수준, 제출서류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시기에 해당부처에서 공고할 예정이므로 부처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특집

"역시 MADE IN KOREA" 사막에 부는 제2중동붐

뜨거운 모래바람과 싸우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도로와 건물을 지었다.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배경이 된 제1중동붐이다. 최근 고유가로 중동지역에 자금이 몰리며 조성되고 있는 제2중동붐,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등장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건설 공사를 따낸 건설업계, 사상 최초의 원전수출이기도 한 UAE 원전수주, 해수담수화기술 수출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우리나라의 중동 진출은 전자정부,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해외 건설인력 부족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다. 젊은 그대들, 한번 도전해 봄 직하지 않을까. 아버지 세대의 경험이 그대들을 인도할 것이니.



○★ N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나라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알룰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1966년 6월~1968년 2월 (현대건설) 5백40만 달러









1976년 6월~1981년 9월 (현대건설)

9억4천만 달러



리비아 대수로 공사

1984년 6월~2003년 12월 (동아건설)

1백5억6천만 달러



UAE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

2001년 1월~2003년 12월 (두산중공업)

7억9천9백만 달러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2002년 3월~2013년 3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UAE 부르즈 칼리파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UAF 워지력 박전소



최초 해외진출 공사

중동지역 최초 진출 공사

당시 우리나라 예산 25% 규모

당시 단일공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 1백퍼센트 국내 기술

세계 최대 규모 가스전 개발사업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新실크로드… 중동에 한국의 미래 있다

건설 · 플랜트 외에 IT · 의료 등 전략적 협력관계 넓어져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열사의 사막을 오기면서 이뤄낸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성과는 척박한 토양에서 출발한 우리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룩하 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최근 고유가로 중동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중동국가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늘리며 우리에게도 건 설·플랜트 이외 시업분야까지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페르시아만에 접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주베일 1970 년대 사우디이라비아가 유가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자 석유수출을 감당하기 위해 동부유전 지대에 위치한 주베일에서는 1976년 6월부 터 1981년 9월까지 원유수출항 건설공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맡아 진행한 주베일 산업항 공사비는 9 억4천만 달러. 당시 한 업체가 맡은 단일공사로 세계 최대 규모였 으며, 우리나라 예산의 25퍼센트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였다. 연인원 2백50만명이 투입된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중 동 진출 초석이 되며 중동붐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외건설 47년 만에 5천억 달러 수주 달성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14일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 5천억 달러 달성과 함께 발표한 '대한민국 해외건설 역사에 남을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지난 6월 14일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사에 있어 뜻 깊은 날이었다. 한화건설이 지난 5월 30일 계약을 체결한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 을 6월 14일자로 수주 신고함에 따라 해외진출 반세기 만에 '5천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가 달성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로 해외건설시장에 처녀 진출 한 지 47년 만의 일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보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 로 공사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외에 8개 프로젝트가 모 두 중동지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 1970~80년대에 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였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플랜트 원자 력발전소·초고층 건축물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 수주로 확대됐다는 변화도 읽을 수 있다.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비롯해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의 수주금액이 전체 수주액의 절반이 넘어 최근의 중동지역 건설분이 제2중동북이라고 불릴 만하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퍼센트 증가, 3백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역별로는 중동이 전체 수주액의 63퍼센트를 차지, 제2중동붐을 확인해 주었다.

해외건설 수주 호조는 전체 서비스 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 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 수지란 외국과 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건설 플랜트 중심의 건설 열기가 뜨거웠던 과거 중동북과 달리 제2중동북은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한 IT.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가 활발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류 바람 타고 문화교류도 한층 활발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은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후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석유화학, 의료,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2중동북은 '쌍방'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 르면 2012년 7월 현재 자발적으로 조성된 한류동호회는 전 세계 73개국 8백43개(회원수 약 6백70만명)이며, 최근 아프리카와 함께 중동지역에서 한류동호회가 급증하며 35개 동호회(약 2만명)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0~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최초 로 주빈국으로 참여해 아랍 문화를 선보였다.

전체 교역 규모에서도 우리의 제2 교역대상으로도 급부상한 중 동. 이제 우리나라와 건설·플랜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IT. 의 료. 복지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떠오르며 문화와 사람 이 오가는 지구촌 이웃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 글·박경아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외건설 목표액을 7백억 달러로 설정했는데 이 가운데 4백억 달러 내외를 중동에서 수주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이미 3백21억 달러를 수주했다. 사우디이라비 아 얀부 정유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림산업 직원들이 공사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열사의 땅에서 한국경제 '붐' 을 심었다

리비아 재건사업·2022 카타르 월드컵 등 건설시장 더 커질 듯

중동건설 붐이 일고 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의 견인치였던 중동건설 붐이 다시 찾아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중동국기들이 고유가로 축 적한 오일머니가 재투자되고 있는 덕이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반기운 소식이다. 국내 건설업계는 중동건설을 통해 국내 건설업 위축 의 파고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5월 30일 이라크에서는 한 기공식이 TV로 생중계됐다.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인 '비스마야' 신도시'의 건설이 시작된 것 이다. 이 신도시의 공사를 맡은 기업은 우리나라의 한화그룹이다. 향후 7년간 하루 평균 2만1천명이 투입돼 도로와 상하수도 주택 등 분당급 신도시를 짓게 된다. 총 공사대금은 77억5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화건설만이 아니다. 중동지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국내 기 업이 수주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날아들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 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기업이 수주한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7 개가 중동지역에서 나왔다. 사우디에서 3건, 이라크에서 2건, 카타 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각각 1건을 수주했다.

해외건설 수주 60퍼센트가 중동물량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6월 UAE의 타크리어 카본 블랙과 딜레이드 코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5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 사업이 다. GS건설도 지난 6월 대형 석유화학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사 우디이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라빅 석유화 학플랜트 공사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GS건설은 올해 수주 목표 인 16조5천억원 가운데 60퍼센트 수준인 10조원을 해외에서 달성 하고 이 가운데 70퍼센트를 중동에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중동지역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해외건 설 수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해외진출 47년 만에 누적 5천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는데 이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중동에서 나왔다. 중동지역의 비중은 1980년대까 지는 9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선 이 지역의 정치 불안 등의 이유로 30퍼센트 내외로 급락했다.

중동건설은 최근 들어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 전체의 60퍼센트 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가히 '제2의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인프라 개선 투자로 이어진 것이 중동건설 부활의 주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과 발전 도로 등 각종 인프라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동지역의 민주 화 바람도 중동건설 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과 의료시 설 등 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설 수요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 연 1천억 달러 물량 수주 목표 세워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해외 건설에서 만회한다는 전략 아래 적극적으로 해외건설에 나섰다. 여 기에 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잇달아 수주 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전체 발주물량의 30퍼센트를 국내업체들이 수주하는 '기염'을 토하 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외건설 목표액을 7백억 달러로 설정했다. 지난해 5백80억 달러에 비해 20퍼센트가량 불어난 수치다. 이 가운 데 절반 수준인 4백억 달러 내외를 중동에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 상반기까지 3백21억 달러를 수주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인상적이었다. 1분기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 가운데 중동지역의 수주는 2백2억 달러로 전체의 63 퍼센트를 차지했다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리비아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1천 2백억 달러에 이르는 재건사업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천2백50억 달러 규모의 석유·가스 분야 5 개년 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의 인 프라 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2중동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 련했다. 먼저 해외건설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의 중동

○ 레이거서 스즈 2042년 AHIJ 40대 표구제도 ~~

● 해외건설 수수 2012년 상반기 10대 프로젝트 (단위: 백만달리)					
	국가	공사명	업체	금액	계약일
1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한화건설	7,750	2012, 5, 30
2	UAE	타크리어 카본 블랙 & 딜레이드 코커 프로젝트	삼성ENG	2,477	2012, 6, 21
3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현대+ 현대ENG	2,161	2012. 6. 13
4	사우디 아라비아	라빅 II - CP3 / CP4 / UO1	GS건설	1,793	2012, 6, 25
5	사우디 아라비아	마덴 알루미나 리파 이너리 공사	현대건설	1,502	2012, 3, 1
6	칠레	석탄화력발전소	포스코건설	1,216	2012. 6. 27
7	이라크	루크오일 웨스트 쿠르 나 유전 개발 프로젝트	삼성ENG	998	2012, 3, 22
8	카타르	루싸일 고속도로 공사 패키지 1번	현대건설	982	2012, 4, 12
9	인도	쿠드기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치공사	두산중공업	761	2012, 3, 16
10	사우디 아라비아	엘라스토머 프로젝 트-MTBE/U&O/CB	대림산업	710	2012, 6, 26
					자료 해이거석현히

자료 해외건설협호

건설 붐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추가 로 필요한 해외건설 인력은 2천2백명에 달하고 2015년까지 총 1만4 천명이 더 투입돼야 한다.

중동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동지역 국빈 방문을 통해 신뢰관계가 깊어지면서 협력의 범위도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국부펀드와 공동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3월 카타르 재무부와 우리 국토해양부 장관 이 카타르에서 만나 한국 기업들이 발굴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카 타르의 국부펀드가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UAE의 국부펀드 중 하나인 인베스트 에이디(Invest AD) 와 제3국 공동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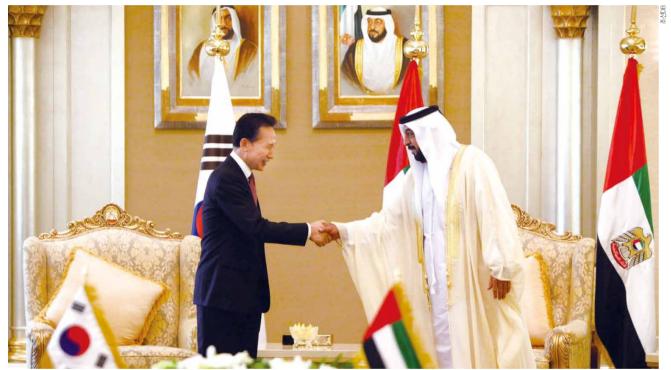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올해 7백억 달러는 물론 2014년 연간 1천억 달러 수주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2중동분 확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고위 급 건설 외교, 맞춤형 해외건설 인력 양성 확대, 투자개발형 사업 육 성, 해외건설 원천기술 확보 등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 정책 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문화제육관광부 (1)

UAE 심사통과로 한국형 원전 건설 '순풍'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로 노후설비 대체시장 확보

산유국이 운집해 있는 중동지역에 '에너지 코리아 바람'이 불고 있다. 2009년 한국형 원전을 이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2010년에는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했고, 올해는 전력생산과 담수화 작업이 가능한 중소형 원전 '스마트'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이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아부다비에서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지난 7월 18일 두바이 발(發) 낭보가 한국에 날아들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UAE 원전 건설사업이 마침내 규제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장장 18개월 동안 심사한 UAE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의 허가가 떨어지면서 한국형원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7월 말 현재 1·2호기에 대한 원자로 건물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UAE 원전은 2009년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쟁쟁한 원전 선진국들을 누르고 후발국인 한

국이 수주해 세계가 깜짝 놀랐다.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서 한국이 월등했다는 점을 들어 원전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는 분석 도 나왔다.

47조원 규모… 2020년까지 총 4기 준공

국내 전문가들은 "30여 년 동안 축적된 원전 운영 경험과 기술개발 노력 등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원전 강국 임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UAE 원전은 2020년 5월까지 아부다비 서쪽 2백70킬로미터 거

리의 브라카에 총 4기의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47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전컨소시엄은 수주 후 브라카 현장에서 부지 정리와 방파제 건설 등 기반 조성 공사를 진행해 왔다.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1천만 제곱미터 면적의 브라카 원전부지에는 현재 한국 인력 8백여 명과 외국인 근로자 5천3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전컨소시엄은 2017년 5월 1천4백 메가와트급원전 1호기를 준공하고 이후 매년 1기씩 추가 준공해 2020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UAE 원전 수주에 이어 2010년 3월에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JRTR) 건설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역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을 제치고 수주한 것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설계·건설·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술개발 50년 만에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전력생산 : 담수화 겸한 '스마트' 원전도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JRTR은 요르단의 북부 람사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 캠퍼스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5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열사의 땅 중동지역에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문화를 옮기는 이 기술프로젝트는 2010년 11월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이후 1년7개월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암반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JRTR은 요르단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의 메카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연구를 비롯, 의료용 방사성동위원 소 생산, 중성자 방사화 분석, 반도체 생산 기지로도 이용된다.

이 같은 용도의 연구용 원자로는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 2백40 기가 가동되고 있다. 이 중 65퍼센트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자로 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구용 원자로 시장이 향후 15년 내에 10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 이어 한국이 달성한 또 하나의 쾌거는 중소형 원전인 '스마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초 원 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스마트는 하나의 압 력용기에 원자로의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 등 을 내장해 안전성을 크게 높인 일체형 원자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 UAE가 참여하는 아부다비 유전개발 현장. 한국은 지난 3월 아부다비 지역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3개 광구를 UAE와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주도로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13개 기관과 기업이 15년 연구 끝에 공동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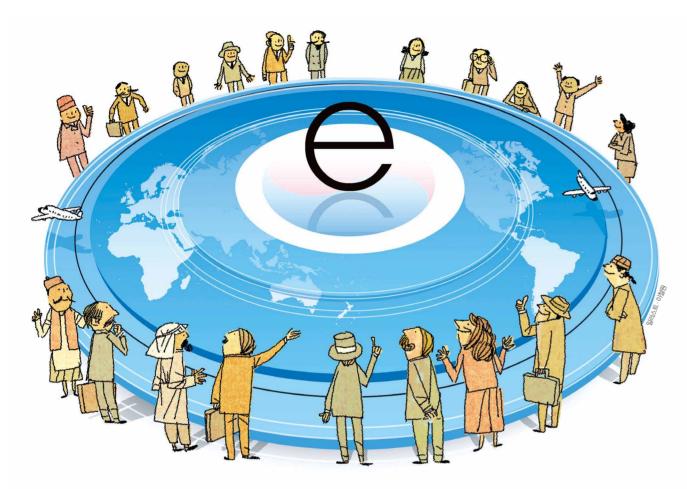
스마트는 1백 메가와트의 전력생산과 더불어 4만 톤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면 인구 10만명 정도의 소도시에 필요한 전력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건설단가가 7천억~1조원 정도여서 기존의 대형 원전(3조~4조원)에 비해 가격 부담도적은 편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담수화 플랜트가 필요한 중동지역 국가들이 벌써부터 집중문의를 해 오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매장량 1천억 배럴 UAE 유전개발에 진출

UAE와는 원전뿐만 아니라 유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컨소시엄(석유공사·GS에너지)과 UAE 국영석 유사인 아부다비 석유공사(ANDOC)는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1천억 배럴의 세계 유전개발 프리미어리그인 UAE에 진출하게 됐다. 그동안 UAE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만 진출해 있었다. 1970년대 일본이 진출한 이후 UAE가 해외에 유전을 개방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한다.

계약 체결 후 한국컨소시엄은 아부다비 행정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은 "40(한국) 대 60(UAE)의 지분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2014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일 생산량이 최대 4만3천 배럴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⑤ 글· 서철인 기자





IT코리아의 힘··· '디지털 실크로드' 놓다

조달·특허·통관시스템 등 올해 전자정부 수출 3억 달러 목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중동국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요르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아부다비의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방한해 우리의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전자정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민관이 힘을 합쳐 중동에 IT 한류를 전하기 위한 '디지털 로드'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려는 중동국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5월 바레인의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왕세자와 외교장관 등 일행 9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전자정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살만 왕세자는 바레인의 전자정부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4월 비레인 정부 주최로 열린 '바레인 전자정부 포럼 2012'에 한국정부를 공식 초청, 한국 전자정부 현황과 사례에 대한 발표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바레인의 전자정부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현재 바레인 정부는 2백40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며 "행정 정보를 전자화하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전자정부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의존 벗고 세계 최고 한국시스템 원해

살만 왕세자는 우리 정부에 교통, 조달 등 바레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장관은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바레인의 전자정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이란의 카르가리 전자정부위원회 국장 등 5명이 한국을 방문해 행안부 관계자와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란 대표단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전자정부도입을 희망하며 우리 측의 도움을 요청했다.

1월에는 요르단 내무부 전자주민증 사업 본부장 일행이 방한하여 행안부 관계자와 전자정부에 관해 협의하고, 국내 관련 업체를 견학했다. 요르단은 전자주민증 사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요르단 정부는 현재 약 4백~5백만 장의 전자주민증 발급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럽 중심의 전자주민증 모델에서 벗어나, 한국의 주민증 관련 정책과 기술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동국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중동국가가 유럽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 분야의 협력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전자정부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최고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중앙행정 기관에서 2천6백여 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정부 강국이다.

세계 45개국 국가별 수출 전략지도 마련

2010년 10만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0년 1억4천8백만 달러, 2011년 2억3천5백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올해 수출 목표는 3억 달러, 향후 5년간 약 25억 달러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달, 특허, 통관 시스템은 세계 각국이 기술 도입을 위해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 거나, 전수하여 국제사회의 정보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까지 1백23개국 3천2백60명의 해외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을 초청 하여 교육을 완료했다.

또한 상대국의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동협력기구인 국제 IT협력센터(ITCC)를 두어 전자정부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의 축적된 전자정부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상대국에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TT 코리아'의 홍보를 위해 국제협력단(KOICA)이 파견하는 IT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7월 초 IT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서필 언 행안부 1차관은 "전자정부 수출에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난 5월 1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요르단의 살만 왕세자, 외무장관 일행과 전자정부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우리 IT기업의 전자정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전자정부 수출목표인 3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IT기업이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행안부는 현재 준비 중인 전자정부 수출 전략지도를 소개했다. 좀 더 체계적인 전자정부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략지도에는 세계 45개국의 국가별 정보화 추진현황과 계획, 관련기업, 협력 파트너, 해당국의 문화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 SDS, LG CNC 등 IT서비스 기업들은 우수한 전자정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이나, 국세청 조세전산망 구축 사업 계약 체결에 속속 성공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들도 중동진출에 빠른 행보

I.G CNS는 지난 5월 비레인 전자정부청과 약 8백만 달러 규모의 '법인 등록 및 인하가 시스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바레인 정부가 '경제개발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법인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I.G CNS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바레인 내 특허, 전자민원,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추가 전자정부 사업의 기회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중동과 전자정부 협력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행 안부 류임철 정보화총괄과장은 "중동 여러 나라와 우리의 전자정부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IT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자정부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⑤ 글·이상훈 기자



지난 3월 중동의 두바이에서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다 한국서 간이식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난 모하메드 알 마리(58)씨가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병실에서 집도의인 외과 조재 원 교수(오른쪽)와 간 절반을 내준 둘째아들(가운데)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도 한류… 새 블루오션 떠올라

중동 환지들 한국행 러시… 의료기술 현지 진출 줄이어

국제의료서비스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으면서 환자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중동이 의료선진국들의 자존심을 건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 지역 국가들은 자국민 질병치료와 건강향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중동지역 환자를 꾸준히 유치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 8개 의료기관이 현지에서 한국의료 홍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 확보에 적극적이다.

● "6세 때부터 앓아온 제1형 당뇨로 신장 가능을 상실하고 장기간 잦은 혈액투석으로 위험성이 높아 미국병원에서도 수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지난 3월 아랍 최대 일간지 〈알이티하드(Al Itihad)〉는 서울아산 병원에서 남동생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받은 아부다비의 한 여성환자(34)의 사례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환자의 경우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희귀 케이스였고, 한국이 유일하게 수술에 성공했다"며 한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간경화 말기였던 두바이의 모하메드 알 마리(58) 씨 사례도 중동 지역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는 간이식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두바이 보건청의 도움으로 한국 행을 선택했고, 지난 3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UAE를 전초기지로 다양한 의료사업

당시 그는 항공사로부터 수차례 탑승이 거부되었고,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한 후 받은 검사에서 간암까지 추가로 발견될 만큼 위독한 상태였으나 12시간에 걸친 고난도의 이식 수술 끝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아부다비 보건청이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 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4개 의료기관과 환자송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호응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6명에 불과했던 방한 환자가 2010년 54명, 2011년 1 백58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UAE를 한국의료산업의 중동진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내 8개 의료기관(서울대 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연세대세브란스 병원·강남차병원·이대목동병원·우리들병원) 대표단이 UAE를 방문해 아부다비 보건청과 공동으로 한국의료 홍보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골암), 이대목동병원(여성암), 차병원(불임), 우리들병원(척추)은 아부다비 보건청과 신규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했고, 보바스기념병원은 두바이 보건청 소속의 재활병원을 위탁 유영하기로 확정했다.

사우디 · 이라크도 보건의료 협력 추진

또한 서울성모병원과 글로벌U헬스사업단은 UAE 보건부가 주관하는 '의료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UAE 14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2억7천만디르함(한화 약 8백80억원)에 달한다.

아부다비 보건청에는 '한·UAE 원격 의료센터'도 개설된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앞서 UAE 내에 최초로 원격진료센터를 열어 한국의료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UAE와 한국 간 거리에서 오는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중동 환자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등과의 보건 의료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은 사우다이라비아는 정부 차원에서 1백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86개 신축병원을 포함한 1백62개의 의료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공공병원 위탁운영, 의료인력 연수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협력사업을 모색 중이다. 지난 2월 라야드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암·장기이식 분야 환자송출, 줄기세포 공동연구, 의료인 연수, 한국 간호사 진출, 한국산 의약품수입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협력을 논의했다. 6월에 개최된 제7차한·사우디 경제공동위를 통해 6개 분야(의료인 연수, 한국 의약품수입, 공동연구,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환자송출, 공공병원 위탁운영등)의 보건의료 협력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라크 역시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현재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무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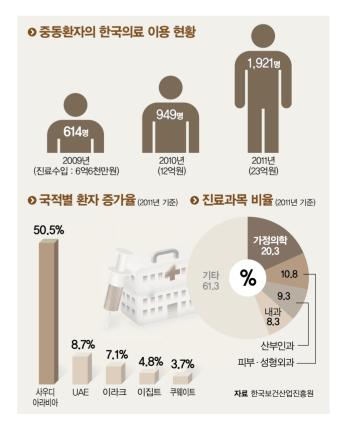


★ N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월 두바이 보건청 관계자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 인요한 국제진료센터 장의 안내로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의회를 구성 중이며, 병원 건설(이동병원, 화상치료·재활·암·이식 전문병원 등), 환자유치, 의약품·의료기 및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등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 카타르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건강보험) 도입에 관심이 크고, 자국 내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에 한국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 쿠웨이트, 오만 등과도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⑤ 글· 서철인 기자



2012.08.01/08 위클리공감





i에서 K팝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11년 11월, 이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K팝 가수의 현지 공연을 원하는 팬들이 모여 응원을 하기도 했다

안방 파고든 한류 덕에 한국 이미지 '굿'

드라마·K팝은 기본… 한국기업·제품, 한국어에 관심도 커져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86퍼센트 시청률을 기록했다. 검은 차도르를 쓴 무슬림 여성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외치고 한국어 강좌에 이집트 사람들이 몰려온다. 중동 지역에서 부는 한류 열풍을 따라 KBS의 위성채널인 KBS월드는 이란에미리트(UAE) 공영방송과 계약을 맺고 방 송을 시작했다. 대중문화에서 시작한 한류는 한국 상품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제2중동붐을 견인하고 있다.

□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온몸을 차도르로 둘둘 싸맨 아랍 여성들의 손에 'We love Korea' 라 적힌 응원 팻말이 들려 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온 아버지는 태극기 펄럭이는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이 입장을 기다리는 곳은 '대한민국'이라 는 한글이 선명한 한국관 사우디아라비아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 주빈국으로 초청된 한국의 역사·문화와 정치·경제를 보고 느끼려 찾은 사람들이다.

자나드리아 문화축제는 26년간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문 화축제로 압둘라 국왕의 주재하에 사우디아라비아 각 지역을 홍보 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적 행사다. 2008년부터 매년 한 나라를 주빈국으로 초청해 주빈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터키. 2009년 러시아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2012년 주빈국으로 초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초청받았던 이유는 최 근 중동 지역에 부는 한류의 영향도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 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우리나라의 성장과정과 역사·문화를 배우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층의 의지도 강했기 때문이다.

사우디 문화축제 한국관에 14만명 몰려

제2중동붐이 1970~80년대 제1중동붐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한류 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 9일부 터 24일까지 16일간, 자나드리아 문화축제가 이어진 동안 한국관 을 찾은 사람은 14만4천여 명에 달한다.

관람객 중에는 정치 사회 경제 지도층 인사는 물론 가족 친구 와 함께 온 일반 시민도 많았다. 관람객 중에는 K팝 스타가 등장하 는 영상물을 보며 스타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는 여성들도 있었다.

드라마 〈대장금〉이 각국에서 기록한 시청률은 중동 지역의 한류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준다. 2007~2008년에 이란 국영방송 IRIB를 통 해 방영될 당시 시청률은 86퍼센트였다.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는 금요일 밤 9시 수도 테헤란 도심의 거리가 한산했다고 할 정도다.

드라마 〈주몽〉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퍼센트 〈허쥬〉은 이라 크에서 80퍼센트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부인의 초청으로 〈허준〉의 주연 배우 전광렬이 국빈 방문했을 때, 곳곳에 인파가 몰려들어 통행이 어려웠을 정도다.

〈대장금〉의 성공은 다양한 방송 콘텐츠 수출로도 이어졌다. 지 난해 11월 터키 이스탄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서 방송통신위 원회가 주최한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는 드라마 〈추노〉 〈동이〉 〈뿌리깊은 나무〉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휴먼다큐 사랑〉 등도 현지 방송사에 판매됐다.

KBS월드, 아랍에미리트서 방송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쇼케이스를 마치고 "현지 방송사들이 드라마쁜 아니라 교육·어린이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에도 많은 관 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프로그램 포맷 수출이나 공동제작 등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KBS의 국제방송 위성채널 KBS월드가 6월 1일부터 아 랍에미리트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혀 방송 콘텐츠의 중동 진출 이 본격화했음을 알렸다. KBS월드는 아랍에미리트 공영통신사 에 티살라트(Etisalat)의 자회사인 E-vision과 계약을 맺고 드라마, 교 양. 오락 및 보도 프로그램을 중동 지역에 방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K팝 열풍도 중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코 트라 중동 11개 도시 무역관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인 절반 이상은 K팝을 들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1~2주일에 한 번은 K팝을 듣는다는 팬 중에는 20대 가 40퍼센트, 10대가 33퍼센트를 차지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22일에는 아이돌 그룹 '제국의아이들'이 K팝 가수 최초로 아 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직접 공연을 보고 싶 다며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정도로 열정적인 중동 팬들의 환호가 뒤따랐다

공연을 기획한 '토털 리소스 인터내셔널' 정숙천 대표는 "K팝의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문화제인 자나드리아 문화축제를 찾은 무슬림 여성들 이 손수 만든 응원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관객의 80퍼센트가 20대 여자 대 학생이었는데, 보호자로 따라온 어머니나 오빠 등 가족들이 놀랄 만큼 열광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7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류동호회가 8백43개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이 중 아프리카·중동 지역에만 35개, 2만명이 한류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K팝 열풍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 9월 이집트 카이로 아인샦스대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에는 1백64명이 응시해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평가받았다.

이집트의 명문대학교로 손꼽히는 아인샦스대학교는 2005년 한 국어과를 개설했다. 이 학과 오세종 교수는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 관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 는데,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좌에는 매년 8 백명 넘는 수강생이 수업을 듣는다.

중동서 판매되는 TV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문화 전반으로 번진 한류 덕분에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호감도 도 늘어났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동 지역에 판매되 는 TV 중 55.5퍼센트가 한국 제품이고 자동차는 2011년에 전년보다 7.3퍼센트 증가한 46만9천대가 팔렸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달한 정 보통신기술(IT)이 알려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은 입소 문만으로 올해 초까지 1백만명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기도 했다.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서 한국관 운영을 이끈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국제문화과 과장은 "1970~80년대 건설 근로자들을 주로 기억하던 중동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도 달라지고 있다"며 "활발한 정치·경제 교류에 문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김효정 기자





코트라가 지난 5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에너지 플라자2012(Global Energy Piaza 2012)'를 열었다. 요르단 전력청인 NEPCO 등 33개국 96개사에서 온 바이어들과 우 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쿠웨이트에서 온 바이어와 우리 기업 관계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침체 '무풍지대'… 중동시장을 잡아라

코트라.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 열고 상담활동… 포털도 구축기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중동시장이다. 중동시장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4퍼센트 전 후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신흥시장이다. 여기에 중동 민주화 이후 시작되고 있는 재건 사업까지, 중동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동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코트라는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이란 수출 제재가 시작됐다던데 우리 제품도 수출이 금지된 건가요?" "이란에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 결제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지난해 말 서방국가가 이란 경제 제재를 결의한 직후 코트라 (KOTRA)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영향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 이 왔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현지 사정을 신속히 알기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문의가 잦았다. 이들의 고충을 돕기 위한 전담부서인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6월 27일 서 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 내 신흥시장팀에 문을 열었다.

중동과의 무역에 대한 문의에 답하고, 기업의 중동진출 지원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5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중동 진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코트라에서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시장 4개 권역 나눠 체계적 지원

2010년 이후부터 한국 건설업계에는 '제2중동붐'이 일고 있다. 세계

적인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중동시장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4 퍼센트 전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중동 경제가 4.2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 동지역 소비시장의 성장도 눈에 뛰다. 4 년 새 두 배로 커졌다.

1970년대의 제1중동북과 2010년 이후 의 제2중동붐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 규모와 수출 품목이다. 제1차 중동북 때는 중동시장의 규모가 GDP 기준 6천억 달러가량이었다. 현재

는 GDP 기준 2조4천억 달러다. 1970년대에는 도로, 송전, 항만 등 토목 공사 위주로 중동에 진출했다면 지금은 복합 고부가가치 건 설공사, 플랜트, 한류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출한다.

코트라는 제2중동붐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세 웠다. 중동시장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 그중 하나다. 첫번째 시장은 프로젝트 수주가 유망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 트 오만 이라크다 지난 5월 도하에 무역관을 세우며 시장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상품 전시회'도 정기적으로 갖기로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이란은 동반 성장이 용이한 국가로 분류 했다. 이 중 UAE와 터키는 중동의 '한류 전파' 교두보로 활용할 예 정이다. 특히 UAE에서 우리 기업들이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 며 형성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동 소비시장에 진출하다는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요르단, 알제리, 모로코, 이스라엘은 잠재 성장 시장으로 분류했다. 민주화 사태 이후 재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등은 재건 성장시장으로 분류했 다. 코트라는 정부・발주처 주요 인사와 교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중동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권역별 분류된 시장 중, 적합한 진출권역을 추천하고 권 역별로 유망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는 상시적인 문의 전화 응대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할 행사도 열 예정이다. '한·중동 비즈



지난 6월 27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조석 지식경제부 제2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오영호 코트라 사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니스 위크'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처음 기획해 서울에서 열린 행 사다 매년 개최학 예정이다

올해에는 10월에 열린다. 중동 국가의 주요 정부 기관, 발주처, 바이어 등과 중동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행사다. 참가비는 무료다. 중동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 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추후 코트라 홈페 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상품 전시회'도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코트라는 지난 5월 UAE 아부다비에서 대규모 한국상품 전시회를 열었다. 중동지역에 서는 처음으로 여는 전시회였다. 1백3개의 우리 기업이 참여해 건축 자재,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소비재 등 현지에서 수요가 많은 품목 을 전시했다.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69개사가 참여 해 중동시장에 상품을 선보였다.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는 중동진출을 안내하는 종합 포털 사이 트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코트라가 보유한 관련 정보, 시장 정보 와 중동 관련 유관기관의 보고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 다. 하반기 내 구축 예정이다.

정영화 코트라 신흥시장팀장은 "세계 원유의 60퍼센트, 천연가 스의 43퍼센트를 보유한 에너지 보고 중동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발주하고 있다"며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기업들이 중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입수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글·하주희기자

> 문의 중동진출 종합지원센터 http://www.globalwindow.org ☎02-3460-7212 팩스 02-3460-7914





한국기업 인턴십에 참가한 오만의 술탄카부스대학생들이 대우건설 당진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을 견학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 노하우 배우러 왔어요"

오만·UAE 대학생들 인턴십·청년대사로 한국의 구석구석 돌0밤

중동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왔다. 이랍에미리트(UAE)와 오만에서 온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반세기 만에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 낸' 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의 한국 체험은 중동 민주화 이후 세계 건설업계에 부는 '제2중동붐'과 맞물려 한국과 중동 사이의 우호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서울의 지하철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사전에 예상해 수도권 전역에 지하철을 깔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 어요."

오만에서 온 사이프 알 만지의 말이다. 그를 포함한 4명의 오만 대학생은 술탄카부스대학에 재학 중인데, 대우건설에서 준비한 인 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오만 대학생들의 한국 체험은 술탄카부스대학의 요청을 계기로 기획됐다. 술탄카부스대학은 올해 초 오만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술탄카부스대학교 재학생들의 한국 기업 체험을 요청했다. 주오만

한국대사관은 오만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에 요청을 했다.

한국문화와 경제발전 동시 체험 기회 마련

대우건설은 요청을 수락해 약 한 달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 오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한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한국의 문화와 경제발전상을 동시에 체험할 기회 를 마련하자는 취지에 공감해서였다.

술탄카부스대학은 1986년에 개교한 오만 최초의 대학으로 오만

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종합대학이다. 이번 인턴십 과정에 선 발된 4명의 학생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 중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7월 2일에 시작됐다. 첫날 입문교육을 받고 나서, 7월 3일부터 3일간 한국외국어대 한국어문화원에서 간단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 후에는 대우건설 생 활관에 머물면서 경영지원본부, 재무금융본부, 오만 수르(Sur) 발 전프로젝트 담당 부서에 흩어져 실습 근무 중이다. 오만 학생들은 본격적인 실습 전에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무척 좋았 다고 했다

오만 수르발전프로젝트팀은 오만의 수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복 합화력발전소 공사를 담당하는 팀이다. 이 팀의 송윤재 대리는 같 은 부서에서 실습 중인 알 벨루시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놀랐다"며 "더 오랜 기간 함께 일해 보 고 싶다"고 했다.

'UAE 청년대사' 첫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

오만 대학생들은 지난 7월 19일 당진 복합화력발전소를 견학했다. 모하메드 알 불루시는 "그렇게 큰 보일러가 있다니 정말 놀랐다"며 "대형 발전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샤비 브 알 사미는 "오만에서 많은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 문에 한국과 한국의 경제발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 서 보니 놀랍다"고 했다.

UAE에서 온 대학생 20명도 최근 한국을 다녀갔다. UAE의 여섯 개 대학에서 선발된 각 10명의 남녀 대학생이었다. 이들은 아부다비 왕세자실에서 주관한 'UAE 청년대사(Youth Ambassador)'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UAE 청년대사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왕 세자실이 차세대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해외 문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왕세자실이 첫 교류국으로 고른 게 바로 하국이다

청년대사들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기획관 등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의 강연을 들었다. 한국의 경제발 전 과정과 인력육성 노하우가 주되 주제였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을 견학하기도 했다. 청와대. 외교통상부. 지 식경제부 등 정부 주요부처를 방문해 한국의 행정체계에 대한 설명 을 들었다. 삼성전자, SK에너지,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해 국내 기업 의 경영혁신, 신기술 개발 과정 등을 체험하기도 했다. 국기원, 보성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은 3일간의 한국어·한국문화 연수를 마친 후 오만 수르발전 프로젝트팀, 회계팀 등의 부서로 나뉘어 인턴 근무 중이다.

녹차밭. 고궁박물관을 방문해 한국문화 체험도 했다.

중동지역 젊은이들의 한국 체험은 최근 부는 제2중동붐과 관련 이 깊다. 김남철 대우건설 상무는 "오만 대학생들의 대우건설 인턴 체험이 양국 경제협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제2중동북을 언급했다. 대우건설은 오만 진출 이후 지 금까지 세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두큼 지역 에 오만 최초의 수리조선소를 건설했고, 지금은 수르 지역에 복합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수르프로젝트는 12억3천5백만 달러 규모 의 공사다.

중동지역에 '지한파' 중요성 날로 커져

"중동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분 이후 건설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 아졌습니다. 2015년까지 8천9백억 달러 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거라 는 예상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원유와 가스처리 시설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중동 민주화 사태 이후에는 국민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발전설비 등이 많이 발 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상무는 전 세계 건설회사들이 경쟁하는 중동시장에서 '친한 파', '지한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 건설사들이 요즘 설계·구매·시공의 EPC 부문에서 큰 경 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럽 회사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 어요. 유럽 회사와 손을 잡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공 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우수성을 잘 알리는 게 더 글·하주희 기자 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의 주택건설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공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한국인 기술자.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해외 건설인력 4천8백명을 양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회의 땅' 중동으로 눈을 돌려라

해외 건설인력 4천8백명 양성… 원전 신규인력 5천여명 채용 예정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신입사원 연봉을 5천만~7천만원씩 지급하면서 해외 건설인력을 모집하고 있고, 전문인재를 스카우트해 온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해외 원전인력도 태부족이다. 2017년 이랍에미리트(UAE) 원전에만 우리 나라 인력 4천3백여 명이 필요하다.

□ 2012년 2천2백명, 2013년 4천2백명… 해외건설협회는 향후 4년 간 해외 인력이 1만4천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공사 현장이 급증했지 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제2중동북'을 타고 급작스럽게 다 가온 인력난은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몸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해외근무 인력이 워낙 부족해 채용 때부터 해외 현장 에서 일하겠다는 직원을 따로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 초 5천 만원대의 연봉(수당 등 포함)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지난 2월 경북대를 졸업한 최훈길(28·가명)씨의 경우도 그렇다. 최씨는 졸업식을 마치고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올라, 현재 사 우디이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 다. 현장 직원 40명 중 20~30대는 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씨는 '새내기'이지만 '귀한 몸'으로 대접받고 있다.

플랜트 현장에서 일한 뒤 정규직 입사

이렇듯 '제2중동붐'이 2030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 다. 취업 후 이직이 잦았던 김재진(31·가명)씨의 경우도 그중 하나. 2011년 중동에 다녀온 뒤 '평생 직장'을 찾은 것이다. 2개월간 UAE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플랜트 건설업체 인 성창E&C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UAE에 재파견됐다. 김씨는 "국외 플랜트산업 미래에 확신이 생겼다"며 "내가 지은 공장 등 기 반시설로 허허벌판인 중동이 경제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피로도 싹 달아난다"고 말했다.

엔지니어의 꿈을 갖고 있는 취업준비생 박세영(28·가명)씨는 STX 인턴사원으로 지난 2월 말부터 4개월간 요르단의 시멘트 플 랜트 설치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성실하게 일한 그는 정규직 채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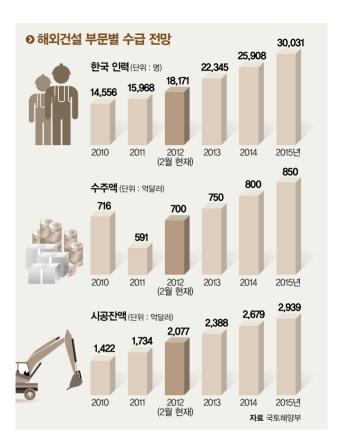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 총 24개국에 파겨된 취업준비생은 약 4백명에 달한다. 2009년부 터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플랜트인턴 십에는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대졸자들이 다수 지원하고 있다. 인턴사원들은 약 2개월간 외국 현장의 실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1970~1980년대 해외 건설 현장으로 진출했던 근로자는 대부분 기 능공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 해외 근무자들이 관리직이나 전문 엔지니어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 전문인 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동 전문인력에 세금 · 교육비 혜택

따라서 건설사들은 인력 스카우트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해외 건설기업들은 경력 직원을 데려온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 고 인사고과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스카우트 대상이 된 직원은 1천 만~2천만원씩 연봉을 더 올려 받는다.

"대졸 신입사원이 해외근무를 하면 연봉을 7천만원이나 주는데 도 이직할까 봐 걱정"이란 우려가 건설업계에선 비명처럼 터져나오 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건설협회는 대구공고를 '건설' 플 랜트 전문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등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 건설 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김종현 이사는 "2~3년 안에 해외 사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대형 건설사가 속출해 인력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중동북'을 타고 활발해진 해외 건설사업 열풍은 새로운 동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해외건설과 원전설비 전문인 력 양성에 나서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해외건설협회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대표적 시례다. 회의 직후 정부는 ▲해외 건설시장 ▲해외 원전시장 ▲중동 지역 건설 등 3개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내용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권혁진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은 "올해 대졸 청년층 3천5백명 을 포함한 4천8백명의 해외 건설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 혔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층의 해외 건설현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졸자 대상 단기 실무교육 인원을 지난해 2천5백명에서 올해 3천5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진출 근로자들 에게 세금 혜택과 교육비 혜택을 주고 ▲대학 마지막 학기를 해외 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하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 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건설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 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제2 중동붐'이 일면서 해외 건설현장에 올해만 2 천2백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며, 2015년까지 1만4천명의 해외 건설 인력이 더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동 인력수요는 UAE 원 자력공사가 한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의 운영인력을 전원 한 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UAE 원전 설계와 건설, 운전 등에 필요한 인력은 2020년까지 연간 1천~4천명에 이른다. **G** 글·이범진 기자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452-7974

most, go, kr. fragara, go, kr. fragara, kr. go, kr. fragara, kr. frag

'걸프협력회의국' 편중 벗어나 다변화해야

산유국 국부펀드 유치 등 금융 분야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이집트 · 튀니지 등에서 촉발된 이랍의 봄은 이웃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권 안정과 민심 회복을 위해 중동 각국이 대대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설 · 토목에만 집중됐던 제(중동붐과 달리 우리나라도 중동국기들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몇몇 국가에 집중된 투자를 다양한 국가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독재 민주화 혁명이 급작스럽게 발발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이웃 아랍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어 '아랍의 봄'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고 현재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아랍의 각성으로 일컬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중동의 산유 왕국은 정권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고유가로 축적한 오일머니를 대규모의 주택 건설과 기반시설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2012년 초부터 한국 정부는 중동 산유국의 적극적인 인프라 유 치 정책을 제2중동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화의 물결이 휩쓸고 간 중동에서 한국은 1970~80년대 1차 중동붐 시기와는 다른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 대상 국가·분야의 다변화와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출 대상국을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국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리비아, 이라크, 이란으로 확대하고, 진출 분야 역시 플랜트, IT, 의료 산업 등으로 다각화하되, 특히 금융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리비아 · 이라크 · 이란도 훌륭한 시장

중동의 왕정은 아랍의 봄 이후 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해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이들 국가는 사회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지역개발을 위해 해외의 인프라 공급자를 대대적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제2의 중동붐의 기회로 보고 글로벌 코리아와 중견국가 한국의 위상과 능력에 맞는 진출정책을 강구 중이다.

일각에서는 제2중동붐을 매우 불안정한 골드러시 구조라고 진 단하기도 한다. 고유가에 더불어 촉발된 중동붐이지만, 이 현상은 달러화 약세와 투기 자본 득세라는 기형적인 국제경제적 요인, 미 국의 정치안보 전략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추가 경제 제재, 핵 과학 자 암살 시도, 테헤란의 핵 시설 선제공격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중 동지역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위기가 국제유 가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생산 쿼터제라는 대안을 내놓았고 OPEC 회원국의 공조 덕분에 유가는 곧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변수로 꼽히지만, 이들 국가 모두 이런 정책에 합의할 것이다. 합의를 파기하고 얻게 될 이득이 장기적인 손해보다 적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때문이다.

아랍인에 존중받는 터키의 독자외교 주목

게다가 이란은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정치화하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다이라비아 역시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더라도 지금처럼 대대적인 인프라유치사업을 50년간 계속해 확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2중동붐을 맞아 지속가능한 중동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GCC국가 집중 공략에서 벗어나 대상 국가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해외 총수주액 가운데 49퍼센트가 걸프협력회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껏 한국의 중동 경제 협력관계가 주로 산유 왕정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 한국은 이러한 미국식 대외관계 양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시민들은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설계에 한창이다. 비일관적인 중동정책을 고수해 온 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현저히 잃어버렸지만, '어느 이웃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겠다'고 독자적인 외교관을 표명한 터키는 중동국가들



지난 5월 30일 서울에서 중동국가를 포함한 39개국 65개 발주기관이 참여한 2012년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가 열렸다. 한국은 중동 진출 대상 국가를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편중에서 벗어나 리비아나 이란·이라크 같은 나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에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터키 수상 에르도안은 아랍의 봄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아랍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뽑히기도 했다.

역내에서 급부상하는 중견국가 터키가 패권국가와 확연히 구별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아랍 시민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대한 변화를 겪은 중동에서 한국은 보다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양한 나라와 협력관계를 모색해야한다. 비(非)걸프협력회의 산유국인 리비아, 이라크에서도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규모의 전후 복구와 국가 재건 사업이한창 진행 중이며, 이란 역시 시장 규모에서만큼은 걸프협력회의 국가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 의 다각화를 이뤄야 하고, 특히 금융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1970~80년대 1차 중동붐이 토목·건설 등 제한된 분야에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이었다면, 제2중동붐은 에너지 기술·플랜트·IT·의료·금융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중동시 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이 이미 값싼 노동력으로 단

순 인프라 분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동은 전통적으로 상업 자본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금융 분야야말로 규모나 후속 사업 면에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진출확대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무역 파트너 차원 넘어 다양한 협력관계로

이미 현지에서 싱가포르와 일본 은행이 유럽계 은행을 제치고 약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유국의 국 부펀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역시 새로운 중동정책의 대안으 로 고려해 볼 만하다

오랫동안 한국은 중동을 석유 수입원이자 건설 투자의 대상으

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이제 두 지역이 다국적 평화유지군 활동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내 공 조를 통해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경 제관계도 무역 파트너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글·장지향 (이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실 위원)





태국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짜오프라야강의 모습. 태국은 매년 홍수로 국토의 3분의 2가 범람, 농지와 산업단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겪고 있다. 태국 정부는 치수사업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태국 치수사업에 '4대강 드림팀' 도전

한국컨소시엄, 12조원 규모 물관리사업 수주전 참여… 중국 · 일본 · 독일과 경쟁

예상 사업비 12조4천억원 4대강 사업으로 노하우를 쌓은 우리 기업들이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 프로젝트 수주에 나섰다. 태국의 수라퐁 토비착 차이쿨 외교부 장관, 탁신 전 총리, 잉락 친나왓 총리 등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심을 표명, 전망은 밝아 보인다. 우리의 치수 기술이 해 외로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4대강살리기 사업' 공사 노하우를 가진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와 수자원공사, 삼환기업이 구성한 '4대강 컨소시엄'이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 프로젝트 수주전에 도전장을 냈다. 태국의 통합 물관리사업 프로젝트는 '태국판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불리는 대형 치수사업. 프로젝트 사업비가 12조원이 넘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노다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외교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초대형 사업이다.

태국 외교부는 지난 2월 통합 물관리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계획(Conceptual Plan)' 수립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2013년 초 공구별로 공사 낙찰자를 선정한다.

유럽서 관심 보이자 국제 경쟁입찰로 바꿔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도 '4대강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주를 본격

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관련 노하우를 쌓은 우리나라가, 해당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국내외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은 지난해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태국 정부가 짜오프라야강 등 25개 주요 강의 홍수를 예방하고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예상 사업비 12조4천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초대형 공사다. 태국은 지난해 8월부터 집중호우로 전 국토의 70퍼 센트 이상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4백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 생했고 경제손실도 18조원에 달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 콕을 관통하는 짜오프라야강을 바롯, 총길이 6천 킬로미터에 달하 는 25개 강에 대해 중장기 수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마 스터플랜을 공개했다.

태국의 치수 사업은 우리나라의 4대강살리기 사업과 유사하다. 태국 정부는 최근 2차례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통합 물관리 시스 템 개발을 비롯, ▲댐·방수로 건설 ▲홍수 저감 저수지 조성 ▲산림 복원·보전 사업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이주빈 상무는 "방조제 축조 등 추가 사업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규모는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태국 장관·총리 잇달아 방한 '4대강 벤치마킹'

수주전과 관련, 당초에는 중국과 일본이 독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까지 큰 관심을 보이자 태국 정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현재 정상들까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오빠인 탁신 전 총리를 3차례나 초청, 재정지원과경제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노다 총리와 왕세자등이 잉락 총리를 직접 만나 일본업체의 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태국 정부도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교부 장관은 한강여주 이포보 현장을 방문해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으로부터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과 치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표했었다.

올 3월 25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는 여주 이포보 현장을 찾아, 보 건설로 1천4백만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저류지 조성으로 홍수위를 11센타미터나 저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여주 한강 이포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시킨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잉락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물관련 전문기관을 주축으로 한 인적교류 및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두 정상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관리 시스템 개선과 이를 위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의수자원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자원관리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4대강 노하우 살려 공사물량 30퍼센트 수주"

정부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권도엽 국 토해양부 장관은 8월 13일 태국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통합 물 관리사업과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수주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태국 정부는 8월 24일 입찰참여 업체에 대한 사전적격심사(PQ) 서류를 접수하고 9월 말, 6대 제안분야별로 각 3개사를 후보업체 (short list)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최종 낙찰자는 내년 초 6대 제안분야별로 1개 업체씩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종합계획의 낙찰자로 선정되면 실제 공사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4대강살리 기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체 공사물량의 30퍼센 트 가량을 수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⑤ 글·이범진 기자



임성훈 나주시장에게 영산강은 도전이자 기회다. 임 시장은 6월부터 나주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산강 저류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여가 공간을 조성해 지역 연계 관광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산강 저류지 위탁관리 맡은 임성훈 나주시장

"태양광 발전·시민여가시설로 쓸겁니다"

근대의 시간을 담고 있는 영산포등대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상테마파크, 쌀알 모양의 승촌보와 통선문이 설치된 죽산보. 나주의 매력을 들자면 끝이 없다. 여기에 영산강 저류지도 곧 이름을 더할 전망이다. 나주시가 지난 6월부터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 저류지 위탁 관리를 맡아 역사문화체험, 휴양, 체육시설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타긴 했지만, 요즘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타지는 못합니다. 가끔씩 영산강 강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지요."

임성훈(53) 나주시장은 자전거를 잘 타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매력적인 '자전거길 20곳'에 뽑힌 영상테마파크와 느러지 구간 외에도 나주대교 전망대, 영산포 홍어의 거리, 죽산보 등도 매력적인 자전거길"이라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나주를 말할 때 자전거길을 빼놓을 수 없다. 영산강 자전거길

총 1백33킬로미터 가운데 나주시 구간(승촌보~몽탄대교)이 약 43 킬로미터로 전체의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시장은 15년간 벤처기업을 경영한 기업가 출신 1999~2002년에는 경기도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2012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스마트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벤처CEO'에서 '행정CEO'로 자리바꿈을 한 임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과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

고 있다"고 시정운영 철학을 설명했다.

요즘 임 시장은 나주시가 위탁관리 중인 약 2백15만 평방미터의 영산강 저류지를 기존의 시설들과 연계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구 상 중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 4일 익산지방관리청과 저류지 관리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저류지란 강 제방 뒤쪽에 위치해 본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본류의 물이 흘러들어 인근 지역의 홍수를 막아주는 거대한수조 역합을 하며, 30년 주기 홍수를 대비해 설계했다

영산강 저류지의 활용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홍수조절이란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 등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의 여가 공간 제공, 자원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한국검사정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46만 평방미터 부지를 연간 20메가와트(MW)의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양궁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원, 자전거도로 등 여가 공간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영산강 주변 관광지와 연계 활용이 가능한지요.

"영산강 저류지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의 핵심인 승촌보와 죽산보의 중간지점인 나주 영산동 영산뜰에 있습니다. 황포돛배체험, 천연염 색문화관, 영산포등대, 홍어의 거리 등과 연계한 '나주 영산강변 저 류지 테마단지'를 조성해 역사문화체험, 휴양, 체육시설의 기능을 포함하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국산보와 승촌보가 영산강 관광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수변생태공원은 황포돛배, 영상테마파크와 함께 많이 알려져 죽산보와 테마파크를 찾는 관 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산강을 전면 활 용하지 못하는 데다 관광거점 기반과 연계성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촌보에서 죽산보까지 황포돛배를 운항해 영산포 식도락 거리와 다시면 천연염색문화관을 연계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 니다. 사계절 꽃피는 수변 조성과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식도락 관광을 동시에 충족시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나주는 머잖아 다른 2천년 시간여행이 가능한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 5기 공약으로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 관광벨트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산재한 기존 관광지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시 상호 자원을 연계하거나 묶어서 관광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자 하는 '벨트화 사업'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이 시·군 간을 이어주 는 고속도로라면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 관광벨트'는 고속도로 휴 게소 같은 역함을 할 것입니다.

○★ N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시는 영산강 권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인 반남고분군, 읍성권, 영산포권, 나주호권 등 4개권역을 벨트화하여우리 시를 더욱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 관광벨트 사업' 중 하나가 '영산강 히스 토리 투어'입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이 '하드웨어적 기반 시설'이라면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우리 시 제안 으로 영산강 유역 8개 시·군이 연계해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 이 야기들을 발굴해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관련 지방자 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KTX 나주역 경유를 주장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이전과 정주여건 마련은 혁신도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반시설만 목표로 하고 있어 지자체는 고민이 많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03년 6월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후 2005년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중 KTX 정차역이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점수로 작용하여 나주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KTX 나주역 정차는 수도권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가장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15개 공공기관 7천여 임직원의 발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잘사는,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주의 귀농귀촌을 소개해 주십시오.

"나주는 영산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풍부한 친환경농업 기반, 편리한 교통망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대상지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내용의 개그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용감한 녀석들'이 '5대 폭력 척결'을 위한 경찰청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지난 7월 19일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용감한 녀석들은 "주폭, 학교폭력, 조직폭력, 갈취폭력, 성폭력 등을 척결하기 위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용감한 녀석들', 이젠 '기특한 녀석들'

'5대 폭력 척결' 경찰청 홍보대사 맡아

헤어진 남자친구건, 담당 프로듀서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바른말을 해 주는 '녀석들'이 있다. KBS 2TV 〈개그콘서트〉 '용 감한 녀석들'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 '5대 폭력 척결'을 위한 홍보대사로 나섰다.

■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용감한 녀석들' 4총사가 경찰청의 얼굴이 됐다. 신보라·박성광·정태호·양선일 등 '용감한 녀석들' 멤버는 지난 7월 19일 경찰청의 '5대 폭력 척결' 캠페인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5대 폭력이란 주취폭력·학교폭력·조직폭력·갈취폭력·성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폭력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이 '폭력으로부터 안 전한 사회 만들기' 대장정을 내걸고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용감한 녀석들'은 이런 경찰청의 캠페인 취지에 가장 적합한 모 델로 뽑혀 홍보대사가 됐다. 비록 코미디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들 이 무대 위에서 권위와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내뱉는 용기 있는 주 장과 태도를 높이 산 것이다.

특히 '용감한 녀석들' 멤버 중 하나인 박성광이 과거 〈개그콘서 트〉의 또 다른 코너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는 주 폭을 소재로 코미디를 보여준 적이 있어 이번 홍보대사 선정과 인역이 갔다.

'주폭' 개그 벌였던 박성광의 멋진 반전

경찰청 측은 "하고 싶은 말을 두려움 없이 속 시원하게 하는 이미 지가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라며 "보복이 두렵거나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 에게 큰 모범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용감한 녀석들'은 앞으로 5대 폭력 척결 관련 포스터와 영상을 촬영하고 무대에서도 폭력 척결과 신고를 독려하는 콩트를 선보이 게 된다. 주폭이나 조폭, 학원폭력에 관한 풍자 코미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 7월 19일 경찰복을 차려입고 위촉식에 참석한 정태호는 "경 찰복이 어울릴 줄 몰랐는데 아주 멋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넷이서 힘을 합쳐 5대 폭력 척결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겠 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새롭게 선을 보인 '용감한 녀석들'은 지금껏 보지 못한 신선함으로 단번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코미디와음악의 결합이라는 퓨전 장르 속에 과장된 힙합 제스처와 현실 풍자적인 즉석 랩을 섞어 사회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다든지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발언이 신랄하고 통쾌했다. 박성광이 〈개그콘서트〉의 담당 서수민 PD를 고발하는 내용이나 신보라가 여성에 대한 외모지상주의를 비꼬는 랩송은 위트 있고 감각적이다.

"신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것"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이들은 무대 위에서 보여줬던 랩송들을 싱글 앨범으로까지 발매했다. '기다려 그리고 준비해' '아이 돈 케어' '봄 여름 여름 여름' 등의 음원은 공개되자마자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 톱10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발매한 '봄 여름 여름 여름'은 여름철 피서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꼴불견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재치있는 가사로 표현한 것이다.

'용감한 녀석들'은 멤버별로도 개성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멤버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홍일점 신보라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휴학 중인 신보라는 이제 데뷔 2 년 된 신인 개그우먼이다.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원 으로 출연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시원스러운 외모로 주목받았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불과 데뷔 1년 만에 2011년 KBS 연예대상 코 미디부문 여자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현재 신보라는 '용감한 녀석들' 말고도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 송 준근과 함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매회 스타들이 출연해 배꼽 잡는 코미다를 보여주는 코너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연기 를 보여주고 있다.

신보라는 "개그우먼이 돼서 좋은 건 좋아하는 노래와 연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래는 CCM 헤리티지에 있을 때 마음껏 불



'용감한 녀석들'은 런던올림픽을 겨냥해 '금메달만 주목하지 말자'는 취지의 '개념 발언' 을 쏟아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렀는데 그때도 앨범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며"그렇기 때문에 개그우먼으로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소신발언 때마다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로

리더 격인 정태호는 지난 7월 22일 개콘 방송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을 겨냥한 '개념 발언'을 쏟아 내 박수를 받았다. 정태호는 "얼마되면 2012년 런던올림픽이 시작되지. 올림픽 기사 중 쓰지 말이야할 것을 알려줄게"라고 말문을 뗀 후 "'안타깝게 은메달에 그쳐', '아쉽게도 동메달에 그쳐'라는 내용의 기사는 쓰지 말아야할 기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금메달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해 방청객들로부터 커다란 환호를 이끌어 냈다. 정태호의 발언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그의 소신 발언에 공감한 팬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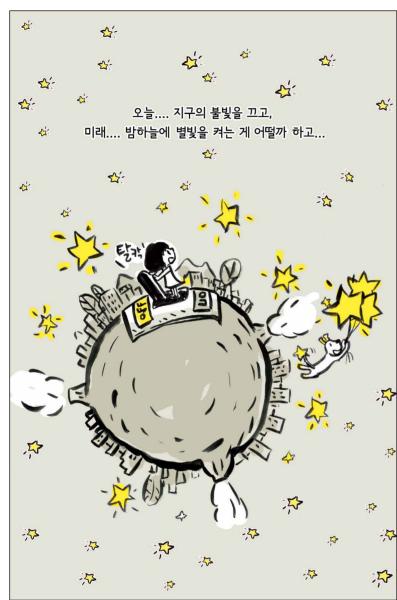
정태호는 '용감한 녀석들'에 앞서 '감사합니다' 코너 등에서도 능청스러운 연기로 인기를 누렸다. 지난 3월에 〈개그콘서트〉 작가인 조예현씨와 결혼에 골인했다.

박성광은 〈개그콘서트〉의 서수민 PD가 꼽는 가장 재능있는 개 그맨의 한 사람이다. 그동안 다양한 코너에서 이색적인 코미디로 눈길을 끌었다. 그중 앞서 언급했듯이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코 너에서 숨겨 둔 연기실력을 자랑했다. 술에 취한 주폭 캐릭터를 너 무도 실감 나게 잘 표현해서 '진짜 음주 연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용감한 녀석들'에게 고민을 의뢰하는 역할의 양선일은 코너의 이 야기 중심을 잘 잡고 있다. 합합과 랩이 계속되는 코미디의 특성상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는 대목에서 포인트를 잡아 주고 있다. ⑤

글·김인구 (일간스포츠 연예팀 기자)





대상 김강섭 작 〈별을 보다〉의 일부 장면.







금상 일반부 김소라 작 〈별 헤는 밤〉의 일부 장(



금상 초등부 고차영 작 (세계 최고 고고학자).

카툰, 표현의 자유를 그리다

제2회 '카툰 공감 만화 공모전'… 대상에 김강섭 스토리 만화 〈별을 보다〉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는 '카툰 공감 만화 공모전'의 참여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출품된 작품 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20배 이상 증기한 3천 점이 넘었다는 것이 그 열기를 증명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프리랜서 만화가 김강섭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89점은 3개 도시를 돌아가며 전시될 예정이다.

●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뜻밖의 상을 받아서 기쁩니다. 어린 이부터 어른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제 작품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2 카툰 공감 만화 공모전'에서 〈별을 보다〉란 작품을 출품 해 대상을 받은 김강섭(필명: 도도)씨의 수상소감이다. 프리랜서 만화가인 김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작품은 별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별을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 집안의 전깃불을 끄고, 야광 별로 방안을 채운다는 내용이다. 소녀의 동심과 에너지 절약을 연결시켰다.

카툰 만화 공모전은 만화 인구 저변 확대와 만화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것으로 올해가 2회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나도 한류스타'(초등부), '위대한 문화유산'(중·고등부), '에너지 코리아'(일반·대학부) 등 3개 주제로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초등부 2천3백42점, 중·고등부 4백88점, 대학·일반부 2백20점 등 총 3천50작품이 응모했으며, 예심과 본심을 통해 모두 8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3천50작품 응모… 수상작 89점 선정

금상은 초등부 고차영(홈스쿨링), 중·고등부 이용림(울산애니원고 등학교), 대학부 이만세·신한나·이주원(부산대·동서대·인제대), 일 반부 김소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 전에 신설된 우수 교사상에는 포항제철서초등학교 권수희 교사와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진기용 교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응모 작품 수가 1회 대회인 지난해(1백75점)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고 작품 수준도 월 등히 향상되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초등부까지 참여 대상 을 확대했고, 공모 주제를 일원화하지 않고 참여 대상별로 다르게 한 것이 참여를 넓힌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대전 컨벤션센터(7월 28~29일)를 시작으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전시관(8월 9~1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8월 15~19일·부천국제만화축전), 문화역서울284(8월 21일~27일·옛서울역)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다. 문화부 홍보콘텐츠과 한기봉 기획관은 "출품된 작품은 정부정책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⑤



지난 7월 23일 예선 심사위원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3천여 점의 공모전 출품작을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장의 심사평 "사색하는 소녀의 심리 잘 표현해 대상 선정"

대상을 받은 김강섭씨의 작품 〈별을 보다〉는 잔잔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안정된 스토리텔링으로 흐뭇한 미소와 생각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자극적이지 않은 먹선 묘사와 연출 능력으로 사색하는 소녀의 심리를 잘 표현해 대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초등부 금상을 받은 고차영(경기도 김포) 어린이의 작품은 단정한 데생과 꼼꼼한 묘사에 시선이 집중됐다. 고고학자가 되어 한반도에서 완벽한 공룡화석을 발굴하겠다는 꿈 역시 귀엽고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게했다. 중·고등부에서 금상을 받은 이용림(울산애니원고등학교) 학생의 〈한국의 위인열전〉은 안중근 의사를 등장시켜 민족적 자존심과 의무를 상기시키게 한 가슴뭉클한 작품이었다.

대학부와 일반부는 치열한 경합 끝에 이만세·신한나·이주원씨의 〈에 너지공주〉(대학부)와 김소라씨의 〈별 헤는 밤〉(일반부)이 수상했다. 웹툰 형식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주〉의 경우 코믹한 동화 패러디를 통한 주제 전달 능력이 후한 점수를 받았고, 〈별 헤는 밤〉은 가족 간 에피소드를 정성껏 그린 안정된 데생이 좋았다. 우수 교사상에 선정된 초등부의 권수희(포항제철서초교) 선생님과 중등부의 진기용(충남애니메이션고) 선생님은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고른 완성도를 나타내도록 잘지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예심: 호중훈(인덕대 교수), 이우영·안종만·권우영(만화가)

본심: 조관제(한국만화가협회장), 강철수·김형배(만화가), 장승태(순천대 교수), 윤기현(부산대 교수), 김병수(목원대 교수)



한국관 · 주제관 · 빅오쇼 · 엑스포디지털갤러리 · 기후환경관

그렇게 멋져?… 이번 휴가 때 꼭 볼 거야!

전 세계 1백4개 나라와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여수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해양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지구촌 축제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 언론이 여수엑스포를 앞다투어 소개하는가 하면, CNN과 론리플래닛은 '올해의 여행지'로 여수엑스포를 선정하는 등 해외에서의 관심도 뜨겁다. 그중 외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룬 여수엑스포 볼거리(한국관, 주제관, 빅오쇼, 엑스포디지털갤러리, 기후환경관)를 소개한다.



주제관 내부에서 멸종위기종인 듀공과 소년의 우정을 통해 위기의 바다를 그린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한국관 │ 수소연료전지 도입한 세계 첫 친화경 건축

유럽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뉴스채널〈유로뉴스〉는 여수엑스포를 특집 보도하며 "3백60여 개 섬과 희귀한 해양생물의 보고인 여수는 바다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한국관은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 출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했다.

장소(ideal place)"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태극 문양으로 장식된 주최국 전시관은 엑스포 전시장 중에서 도 시선을 끄는 디자인"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관은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국관은 국내 관람객들에게 도 아쿠아리움, 주제관과 함께 3대 인기전시관으로 꼽힌다. 한국관 안에 마련된 돔 스크린은 지름 30미터, 높이 15미터, 둘레 95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다. 관람객들은 반구형 돔 안에서 산호와 해초, 거 대한 고래와 가오리, 물고기 군무 등 깊은 바닷속 광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한국 바다의 역사와 무녀의 연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강강술래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유로뉴스〉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관 내부 콘텐츠를 자세히 소개했다.

2 | ^{주제관} | 건축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 연출

여수엑스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제관은 독창적인 디자 인으로 해외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31개국 1백36개 팀이 참가한 국제 현상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세계 최초의 해상 건축물로, 오스트리아 '소마 아키텍처(soma architecture)'의 작품이다.

오스트리아 국영방송(ORF)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관을 오스트리아 건축그룹이 디자인했다"며 "주제관의 디자인은 엑스포의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구현한 것이다"고 전했다.

미국의 CNN도 "강화 섬유 유리로 된 외벽의 키네틱 파사드 (Kinetic Facade·움직이는 전면볙는 숨 쉬는 상어 아가미를 형상 화한 것으로, 움직임과 빛을 이용, 건축물이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다"고 호평했다.

박오쇼

불꽃과 레이저·분수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국내 관람객들 사이에서 최고의 볼거리로 꼽히는 빅오 쇼에 대한 관심은 외신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모든 길은 여수로 통한다'라는 제목의 여수엑스포 특집 기사에서 "빅오라 불리는, 장



빅오쇼는 물과 불, 빛과 레이저가 어우러진 최 첨단 멀티미디어쇼로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외 신기자들의 눈도 사로잡았다.

관을 이루는 구조물은 조명과 레이저를 사용한다. 거대한 워터스 크린 위에 굉장히 다채로운 쇼를 투사한다"며 빅오쇼를 언급했다

일본〈산케이 신문〉도 "여수박람회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대한 지상 최대의 분수 빅오쇼가 펼쳐진다"며 "빅오는 높이 약 41 미터, 직경 약 35미터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로, 워터젯과 영상프로젝터·노즐이 설치돼 있어 불꽃과 레이저·분수가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대한 입체영상이 O자 형태의 구조물을 통과해 눈앞으로 튀어나올 듯이 움직일 때마다 관람객들의 환성이 들려온다"고 빅오쇼에 대한 객석의 뜨거운 반응을 덧붙였다

4

일본 NHK, 유비쿼터스 엑스포 특징 소개

엑스포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바다, 디지털엑스포갤러리다. 길이 2백18미터, 높이 30미터의 갤러리에 들어서면 귀여운 꽃게와 해파리가 돌아다니고, 거대한 혹 등고래가 헤엄을 친다. 2천4백 개의 발광다이오드(LED) 조각이 만들어내는 영상은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2012여수엑스포의 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유럽 대표 신문인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의 보 물, 전남이 새롭게 빛난다'라 는 제목으로 여수엑스포를 소개하며 주요 볼거리로 엑 스포디지털갤러리를 언급했 다. 일본의 NHK도 스마트폰 으로 찍은 사진을 전송해 화



다음 엑스포 개최국인 벨기에는 여수엑스포에 다. 일본의 NHK도 스마트폰 서 그대로 옮겨가고 싶은 시설물로 엑스포디 지털갤러리를 꼽았다.

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는 '꿈꾸는 고래'의 시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여수엑스포의 유비쿼터스 특징을 소개했다.

기후환경관

얼음터널서 세찬 눈보라 온몸으로 느껴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박람 회 전문 잡지 〈이그지비타〉는 여수엑스포를 소개하며 기후 환경관을 집중적으로 다루 었다. 특히 실제 얼음의 빙벽 과 북극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에 주목 하며 "관람객들은 블리자드



기후환경관은 첨단 기술과 영상을 통한 흥미 있는 접근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 깨워준다.

의 얼음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몸을 감싸고 세차게 불어오는 눈보라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복합영상관에서는 얼음으로 뒤덮인 벽에 투영하여,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죽어가는 북극곰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며, 첨단 가술과 영상을 통한 흥미 있는 접근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③

8월 1~2일 '한국의 날' 놓치지 마세요

'한국의 날' 행사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엑스포홀과 엑스포광장, 해상 무대 등 박람회장 전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박람회 개최국으로서 참가국 및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여수엑스포 개최 의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자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는 공연과 전시로 꾸며 질 예정이다. 부채춤, 사랑가, 태평무, 택견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소개하고, K팝 축제, 불꽃놀이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알릴 계획이다. 남대문, 풍남문, 도갑사 해탈문, 강릉 객사문, 화엄사 극락전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국보와 보물을 축소해 한자리 에서 선보이는 미니어처 전시회도 열린다.



길섶 들꽃과 친구 되어 볼까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10' 선정… 경치와 접근성 최우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10'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녹색길 10곳을 경치와 접근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주변의 맛집, 볼 거리, 숙박시설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10곳 외에도 올해 조성 중인 45곳의 녹색길에 대해서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 도록 서두를 계획이다.

■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10'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 김장주 지역녹색정책관은 "지난해 우리마을 녹색길로 선정된 전국 80곳을 대상으로 53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베스트10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길 베스트10에는 광역시(市) 지역에서 ▲광주 동구의 '무등산 자락 다님길' ▲울산 울주군의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 등 2곳이, 도(道) 지역에서 ▲경기 양평군의 '두물머리 물래 길' ▲강원 철원군의 '소이산 생태 숲 녹색길' ▲충북 충주시의 '비내길' ▲충남 서산시의 '서산 아라메길' ▲전북 정읍시의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전남 여수시의 '금오도 비렁길' ▲경북 예천군의 '삼강~회룡포 강변길'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 자락길' 등 8곳이 뽑혔다.

휴가도 보내고 건강도 챙기고

심사에 참여한 걷기 여행가 김영록씨는 "우리마을 녹색길 취지에 맞는 경관성·환경성·접근 및 이용성·편의성·관심도 등을 중점 요소로 지역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며 "이번 여름 휴가 때 자연을 만끽하며 '느리게 걷기'를 실천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대전 서구의 '갑천 생태문화탐방 녹색길'과 안동시 '하회~병산 선비길', 제주시 '갑마장길' 등도 '베스트10'에 뒤지지 않는 좋은 길" 이라고 추천했다

김장주 지역녹색정책관은 "녹색길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천 4백11명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녹색길 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진 후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선정된 녹색길은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동호회 참여 걷기대회 개최, 홍보책자 소개 등을통해 널리 알려 걷기 바람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의 두물머리 물래길은 남한강과 북한

강의 강변을 이용하여 조성된 녹색길로, 양수역에서 출발하여 북한강 철교 있는 곳이 종점이다. 연꽃과 갈대밭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위를 비상하는 철새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영화나 드라마,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하며,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흙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다.

충북 충주의 비내길은 시작점과 종점이 능암리 앙성온천 지구여서 주차와 목욕시설,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갈대밭으로 유명한 남한강의 비내섬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강변, 산, 논밭, 과수원 등 산수화 같은 전원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강원도 철원군의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60여 년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시림의 자연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민족분단을 상징하는 소이산 지뢰꽃 길은 아픔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느낄 수 있으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백마고지, 구 노동당사, 궁예도성 등 한국전쟁과 철원의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있다.

전북 정읍의 정읍사 오솔길은 1천3백년 전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백제가요 '정읍사'를 회상하며 붙인 이름이다. 해발고도는 150~300미터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옛마을 옛길과 연결되어 있다. 솔향을 음미하며 즐기는 삼림욕과 함께 정읍의 역사와 전설이 숨어 있는 경관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인근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어 둘러볼 만하다.

전남 여수 금오도 비렁길은 남해안의 아름다운 벼랑을 따라 조성됐다. 깊고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의 아찔함과 산의 푸근함을 동시에 느끼며 걸을 수 있다. 금오도는 우리나라에서 21번째 큰 섬으로 고종 21년까지 궁궐의 소나무를 가꾼 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 자락길은 11개의 마을을 잇는 순환 형 도보길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며 걷는 풍경이 일품이다. **ⓒ**

글·이상흔 기자





시골로 가는 추억여행… '레일그린'이 뜬다

코레일, 주말 기차여행 운영… 8개 지자체 선별 후 농업진흥청 인증

시골로 가는 기차여행, 생각만으로도 정겹다. 메마르고 건조한 가슴에 풀빛 바람이 불면서 한껏 조인 심신이 느슨해지는 기분이다. 올 여름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는 '힐링'이 필요하다면 운전대를 놓고 열치를 타라. 때마침 코레일이 7월 28일부터 주말마다 농어촌으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 품 '레일그린'을 운영한다고 한다.

○ 이른 아침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가 오전 10시 무렵 김천역에 도착한다. 기차에서 내려 옛날솜씨마을에 이르니 순박한 미소의 마 을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 준다. 그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산나물향 가득한 비빔밥에 입이 즐겁다. 직접 만들어 먹는 찐빵, 송편, 두부는 고향 어머니의 맛이다.

아이들은 황토염색, 짚풀공예, 옥수수 따기 체험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조용하던 산골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하다. 덩달 아 즐거운 마을 주민들도 "사람 사는 것 같다"며 연신 싱글벙글이 다. 못내 아쉬워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청정도량 청암사로 이동한다. 새소리 풍경소리가 머리를 맑게 틔운다. 스님을 따라 다 도(茶道)를 익히니 온몸에서 향기가 나는 듯하다.

오후 4시, 김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저녁 9시 못 미쳐 서울역에 도착,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하루 코스 여행 이었음에도 에너지가 충만하게 차오른 느낌이다.

코레일의 패키지 열차상품 '레일그린'이 추구하는 여행이다. '레일 그린'은 코레일이 8개 지자체(김천시, 산청군, 순천시, 양구군, 용인 시, 충주시, 철원군, 홍성군)를 선별하고 농촌진흥청이 인증한 상품 이다. 기차여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농 산물 수확 체험 ▲계절별 농촌생활 체험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장터 ▲트래킹 체험 ▲지역 문화유산 해설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농산물 수확체험 · 직거래 장터 등 구성

'레일그린'은 농촌체험을 할 경우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 을 수 있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실속 있는 가족여행 상품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차여행 상품은 7월 28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번씩 운행(설·추석 연휴 제외)하며 자세한 상품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의 '종합여행' 게시판과 서울역, 용산역 등 코레일 철 도역의 여행센터, 철도고객센터에서 얻을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

코레일 측은 "레일그린'의 고객 서비스 향상과 체험프로그램 관 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농어촌 체험 지역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G

문의 코레일 www.korail.com 철도고객센터 21544-7788

상품명	KTX(일부 ITX)	무궁화(일부 새마을)	체험내용
김천시 '산골짝 옛날 솜씨마을로 여행'	서울역→김천구미역(대전역 경유) 부산역→김천구미역(동대구역 경유) 서울역 기준 8만1천원(소인 6만7천원)	 서울역→김천역(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조치원, 대 전역 경유) 부산역→김천역(대구, 동대구, 경산, 밀양, 구포역 경유) 서울역 기준 4만9천원(소인 4만7천원) 	*민속놀이 체험(재기 만들기 및 차기), 찐빵, 송편 두부 만들기, 황토염색, 자연물공예, 짚풀공예 오미자효소, 가양주 빚기, 농산물(옥수수, 감지 고구마) 수확, 청암사 사찰문화 탐방
산청군 '약초향기 따라 행복 따라 산청여행'		· 동대구역↔진주역(삼랑진역 경유) · 부전역↔진주역(구포, 창원, 창원중앙, 마산역 경유) · 순천역↔진주역 · 동대구역 기준 4만3천6백원(소인 4만1천6백원)	• 아름다운 마을 남사예담촌 투어, 선비나무 염색 약초주머니 만들기, 서당 체험, 한의학박물관, 구 형왕릉 견학
순천시 '美 순천만 느림여행'	*용산역↔순천역(천안아산, 서대전, 익산, 전주, 남원역 경유) *용산역 기준 7만9천원(소인 6만2천3 백원)	·용산역→순천역(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조치원, 서 대전, 논산, 익산역 경유) ·부전역→순천역(구포, 창원중앙, 창원, 마산역 경유) ·용산역 기준 6만1천6백원(소인 6만원)	* 순천생태마을(곡물 천연비누 만들기, 떡메 치기 체험, 순천만 갈대밭 관광(순천만 생태관, 순천 만 용산전망대)
양구군 '이팔청춘 농촌체험'	광주역→용산역(익산, 서대전역 경유) †부산역→서울역(동대구, 대전역 경유) →(TX 용산역→춘천역(청량리역 경유) †부산역 기준 11만9천(백원(소인 9만2 천원)	• 익산역→용산역(강경, 논산, 서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 오산, 수원역 경유)→ITX 용산역→춘천역(청량리역경유) • 익산역 기준 5만8천원(소인 5만3천원)	· 농촌문화 체험(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짚공예 디딜방아 등), DMZ 자연생태 탐방(두타연 갤러리, 두타연 트레킹), 양구 중앙시장 관광
용인시 '이색맛 vs. 이색체험'		 동대구역→수원역(구미, 김천, 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역 경유) 익산역→수원역(강경, 논산역 경유) 새마을 군산역→수원역(장향, 대천, 홍성, 온양온천, 아산역 경유) 동대구역 기준 6만9천6백원(소인 6만7천6백원) 	·용인농촌테마파크 해설 탐방, 농도원목장 체험 (건초 주기, 치즈 만들기, 트렉터 타기), 에듀팜지 연농원(오이피클 만들기, 화분 분갈이하기)
철원군 '청정보고 DMZ 체험'	• 부산역→서울역(동대구역 경유) • 광주역→용산역(익산, 서대전역 경유) →ITX 용산역→기평역(청량리역 경유) • 부산역 기준 12만4천백원(소인 9만8 천5백원)	 익산역→용산역(서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 수원역 경유)→ITX 용산역→가평역(청량리역 경유) 익산역 기준 6만3천원(소인 5만9천5백원) 	 웰빙 맛투어(철원 오대쌀과 산두릅의 만남, 오다 두릅밥, 초등학생은 주먹두릅밥과 더덕떡갈비 추가 제공), DMZ 안보관광(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철원 청정 농산물 체험(토 마토, 파프리카, 오이 중), 산양유 치즈 체험, 독 공예 체험, 한탄강 얼음트레킹
충주시 '일단 와바유 봐봐유'	 부산역→오송역(무궁화호로 환승해 충주역 도착) 서울역→오송역(무궁화호로 환승해 충주역 도착) 부산역 기준 9만4천6백원(소인 7만9 천3백원) 	・대전역↔충주역 ・누리로 제천역↔충주역 ・대전역 기준 4만5천4백원(소인 4만4천8백원)	* 곰취농장 체험, 계곡 물놀이, 음식 체험(김밥 민 들기), 공예 체험, 미륵사지 견학, 하늘새 산책 은하수농장 체험(옥수수 따기, 사과 따기)
홍성군 '자연에 로그인하고 싶을 때'	 부산역→천안아산역(동대구, 대전역 경유)→새마을호 아산역→홍성역 부산역 기준 9만8천백원(소인 7만9 천9백원) 	*새마을호 용산역→홍성역(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아산, 온양온천역 경유)→무궁화호 용산역 *용산역 기준 4만5천원(소인 4만3천원)	자연에 로그언1 : 숲과 새집 이야기(새집 만들기 숲 체험), 자연에 로그인2 : 갯벌이야기(갯벌 체험, 조개집 이와 천연머드팩, 소라껍질로 화분 만들기), 한용 운 생가지(혹은 내포 야생화) 탐방

most, go, kr. Ao

올여름엔 도서관으로 휴가가자~

전국 도서관들 '영화 읽기' · '하룻밤 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내놔

여름이라고 무조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다. 책 향기와 함께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도서 관들은 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올해는 '독서교실'부터 '영화 읽기',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자기'까지 프로그램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제천 기적의도서관은 책에 둘러싸여 하룻밤을 보내며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나이에 맞게 체험하는 '책 속에서 여름나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책 속에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우리 말 우리글'을 주제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특별히 국립국어원의 연구관들이 참여해 '한글은 우리의 자랑',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등 독서를 위해 필요한 올바른 우리말 상식을 알려준다.

중학생들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과학터치! 톡톡!'에 참여할 수 있다. '해리포터 사이언스', '건축가와 함께 나누는 책'과 저자강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 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영화 읽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8월 4일 '달퐁이의 꿈', 8월 11일 '너는 특별하단다'2'가 각각 강당과 멀티미디어실에서 상영된다. 참여 대상 60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인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문의 www.nlcy.go.kr ☎02-3413-4757

남산도서관

체험교실·테마전시 등 도심속 낭만 선사

남산도서관은 책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어 도심 속 낭만의 장소로 꼽힌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매일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평소에도 전 연령층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소설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목요일'은 8월 중 도서관을 찾아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8월 중 특별행사로 잔가지로 나무배지를 만드는 '나무배지 만들 기 체험교실'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남산도서관 선정작인 〈똥벼 락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판소리로 듣고 마임으로 보 는 동벼락 이야기가 예정돼 있다. 8월 31일까지 2층 로비에서 '여성,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 제목의 테마전시도 진행되다

문의 nslib.sen.go.kr ☎02-6911-0143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등 매달 다른 테마전 열어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은 저자와의 만남, 책놀이 등과 더불어 매달 새로운 테마전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 8월에는 '추억 한 숟갈'이라는 주제로 옛날 아이들의 노래를 배우는 '흥얼흥얼 노래보따리', 영화를 주제로 한 '위잉~돈다, 필름 두근~ 울린다, 마음' 등이 상시로 진행되다

2012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서강도서관 선정 도서인 〈오늘의 날씨는〉의 이현 작가를 만나 보는 '동화먹는 토요일'과 그림책 〈놀자〉의 박정섭 작가와의 '책 이야기'도 흥미롭다. 8월 25일 진행되는 '감성의 오이詩스'는 시화 만들기, 자작시 낭송 등 시를 매개로 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다. 더불어 '난 빨강'의 박성우 시인과 함께 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볼 수 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8월 9일 도서관 초대석에서는 청소년 심리전문가로부터 이 땅의 부모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대한민국 부모'가 진행되다.

문의 sglib.mapo.go.kr 202-3141-7053

충북 제천 기적의도서관

매일 그림책 읽어 주는 '두 귀를 쫑긋' 진행

"도서관 어디에서든 스피커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놀랐어 요. 말 그대로 이야기 천국이네요." 제천 기적의도서관은 매일 스피 커와 빔 프로젝터를 통해 그림책을 읽어 주는 '두 귀를 쫑긋'이란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아빠는 어디에〉〈아기 반달 곰〉〈과자마녀를 조심해!〉 등의 책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하는 '책 도깨비네 작가마을—작가랑 놀자' 도 8월 중 3차례 계획되어 있다. 8월 1일과 8일에는 유진, 박재철 작가가 함께하며 12일은 안동 편재문 작가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래 놀이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8월 14·15일 진행되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는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밤새워 책도 읽고 가족,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8월 18일 저녁에는 도서관 야외 반달극장에서 '한여름밤의 도서 관 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공연에서는 제천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년 여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과학터치! 톡톡!'이 주제로 선정됐다.

악동아리의 오카리나, 우클렐레 연주와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 '푸른소리'의 합창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www.kidslib.org ☎043-644-1215

경기 여주도서관

'영화읽기'·'다큐멘터리 읽기' 등 준비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여주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감성을 싹 틔우는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매주 토요일오후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감상하고 팝업북을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도 이뤄진다. 8월 4일 이웃집토토로를 시작으로 붉은 돼지,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이 상영되다

8월 11일 '도서관에서 하룻밤을'도 주목할 만하다. 11일 저녁 7시 부터 12일 7시까지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도서관에서 1박 2일을 보 내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박봉남 PD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배우는 '다큐멘터리 읽기'와 '영어그림책 읽어 주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아동 작품 작가와의 만남' 등은 8월 말까지 상시로 운영된다. 9월 11일에는 '도서관속의 물리강연'이 열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의 특강을들을 수 있다. **⑤** 문의 www.yjib.go.kr 2031-887-3308

글·이현민 인턴기자



잘 쉬고 충전해서 돌아오세요~

올 여름 휴가 대이동… '脫 서울' 8월 3일까지 혼잡예상

하루 평균 4백6만명, 총 7천7백23만명. 올 여름 '휴가 대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 숫자다. 국토해양부는 7월 27일~8월 3일, 8일 동안 전체 여름 휴가객의 43.9퍼센트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피서객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출발일은 8월 3일 금요일, 돌아오는 날은 6일 일요일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 국토해양부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휴 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는 이번 특별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백6만명, 총 7천7백2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휴가철 대비 2.5퍼센트, 평상시 대비 16.1퍼센트 증가한 수치.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7천4백1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 휴가철의 피크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 국토부는 이 8일 동안 휴가객의 절반에 가까운 43.9퍼센트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휴가지로 출발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기간은 8월 1일 수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나흘간,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기간은 8월 5일 일요일부터 6일

❷ 교통정보안내

종합교통정보 안내

- 국토해양부 www.mltm.go.kr
- 인터넷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www.its.go.kr
- ☎1333(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공, 기상)

전국 대중교통정보안내 · www.tago.go.kr

고속도로 교통정보안내 콜센터 • www.ex.co.kr, ☎1588-2504

응급환자 수송 ☎119, 병원진료 안내 ☎1339

철도

- www.korail.com ☎1544–7788.
- 고속버스 경부선 www.kobus.co.kr, ☎1544-5551
 - 호남선 www.easyticket.co.kr, ☎1588-6900

항공기

- 대한항공 www.koreanair.com
-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co.kr

여객선 • 한국해운조합 **기상정보** • ☎841-0011

• 기상청 www.kma.go.kr, ☎131(해당지역 DDD+131)

월요일까지 이틀간으로 파악됐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이 22.6퍼센트로 가장 많고, 남해안 권 15.7퍼센트, 서해안권 11.4퍼센트, 강원내륙권 10.5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바율은 2011년(8.2퍼센트)보다 다소 줄어든 6.5 퍼센트로 조사됐다.

기차·고속버스 증편 등 특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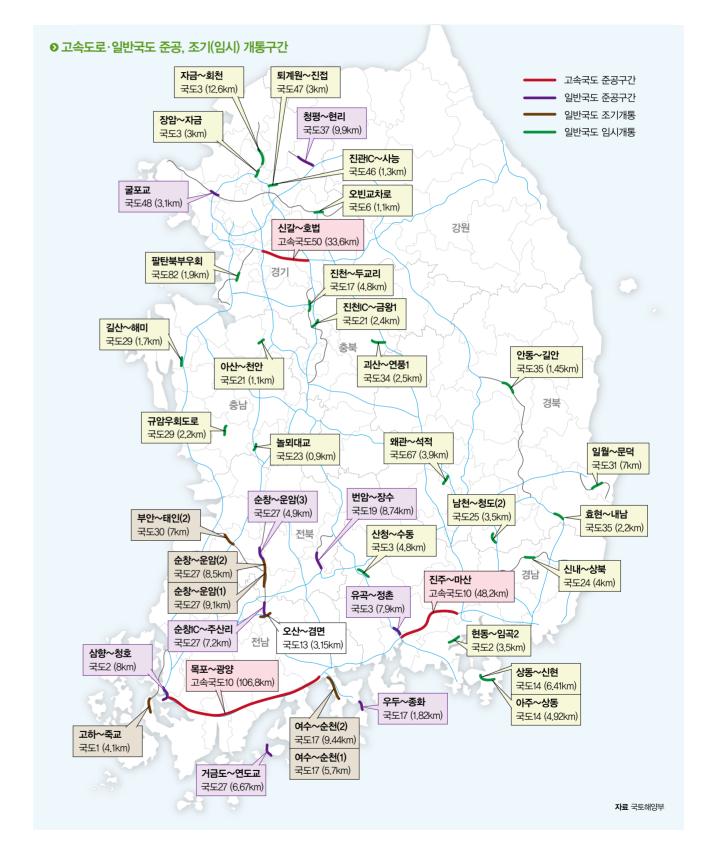
정부는 여름 휴가기간 폭증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수 송량을 하루 평균 5백73대에서 6백9대로 6.3퍼센트 늘리고, 고속버스 예비차량 87대를 투입해 평시보다 수송량(서울 출발 기준)을 하루 평균 3천7백28회에서 3천9백47회로 4.8퍼센트 늘렸으며, 전국항공기 운항 횟수를 3백98편에서 4백29편으로 9.2퍼센트 증강시키기로 했다.

또 여객선 운항 횟수를 8백5회(편도 기준)에서 1천49회로 30.3퍼센트 늘리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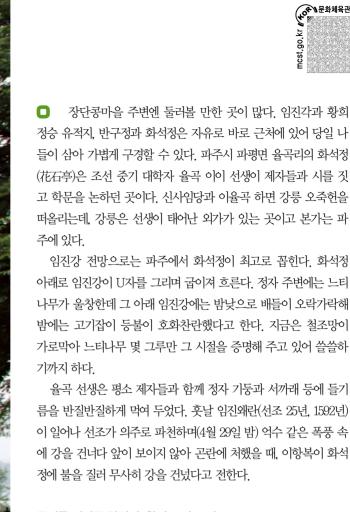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영동선 망상역엔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차의 임시정차를 4백76회 가능하게 했으며, 영동선 승부역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90회의 임시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또 동해남부선 송정역엔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2백88회 임시정차를 허용했으며, 충북선 삼탄역엔 7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 68회에 걸쳐 임시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원활한 피서객 수송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갓길 운행을 임시로 허용하는 등 도로 소통능력을 제고했으며, 스마트 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과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및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 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무료로 제공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도로공사 로드플러스 및 콜센터와 도로전광판 1천4백91개가 운영된다. **③** 글·이범진 기자







율곡 선생은 평소 제자들과 함께 정자 기둥과 서까래 등에 들기 름을 반질반질하게 먹여 두었다. 훗날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년) 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파천하며(4월 29일 밤) 억수 같은 폭풍 속 에 강을 건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곤란에 처했을 때, 이항복이 화석

들기름 먹여둔 화석정, 왕의 도강 도와

임진강 화석정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일품이다. 느티나무와

정자가 어우러진 풍경도 고즈넉하고 아름답다.

율곡 선생은 여기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후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며 제자들과 함께 시와 학문을 논했다고 한다. 당시 그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가 여기까지 찾아와 시간 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임진각과 평화 누리 공원은 참혹했던 한국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는 곳이 다. 1972년 북한 실향민들을 위해 세워진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전 망대를 갖춘 임진각은 매년 2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통일안보 관 광지의 대명사다. 임진각 내 북한관에는 북한의 생활상 전반에 대 한 다양한 자료와 화보를 전시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면 좋다. 대형 낙서판에 아이들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글들을 써 보 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임진각 전시관 바로 옆에 조성된 평 화누리 공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임진각 남쪽의 반구정(伴鷗亭)은 조선 초기 청백리였던 황희 정 승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 황희 정승은 18년 동안 세종을 보필하다 말년에 이곳으로 낙향해 기러기와 벗하며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반구정은 그때 지은 정자다. 임진강 하구로 펼쳐지는 너른 들녘과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强和 站到 对合의 政告 吸犯的是批批的财产的股份

임진강이 휘돌아 흐르는 언덕 위에 세워진 화석정의 전망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임진강 주변 여행지를 둘러보고 임진강의 명물 참게탕을 맛볼 수 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국내 여행지 중의 한 곳이기도 하다. 화석정 주변의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 황희 정승 유적지, 자운서원 등을 둘러보며 안보관광도 할 수 있다. 여기에 파주 구석구석 지리 잡은 이색박물관 여행은 덤이다.





황희 정승 유적지 내에 위치한 반구정은 임진강을 조망하기에 좋다.



한국전쟁 때 불타 버린 황희 정승 유적지는 복원작업 끝에 1967년 옛 모습을 되찾았다.

원래 반구정 일대는 팔도 사람이 선현을 추모하는 곳이었다. 대 대로 풍경의 변화 없이 지켜 왔는데 한국전쟁 때 불타 버렸다. 그 후 황희 정승 후손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해 1967년 6월 옛 모습으 로 개축됐다. 문산 임진강변에 있고 반구정 앞에는 널찍한 모래톱 이 있다. 맑은 날 정자에 오르면 멀리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

파주의 명소 자운서원과 두루뫼박물관도 꼭 들러 보자. 자운서 원은 율곡 이이와 그의 부모 묘소가 있는 곳이다. 율곡기념관과 시 비도 잘 꾸며져 있다. 넓은 주차공간도 있으니 가족끼리 소풍 나와 천천히 서원을 둘러보면 된다. 자운서원은 높은 대지 위에 사당을 앙히고 사괴석 담장을 둘러 삼문 앞 계단으로 오르내리도록 설계 됐다. 사당은 6칸으로 팔작지붕이데 율곡 이이 위패 양옆에 김장생 과 박세채의 위패도 봉안돼 있다. 신문(神門)과 양쪽 협문(夾門)은 솟을대문 모양이라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찬찬히 훑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자운서원을 가운데 두고 좌우 능선에는 율곡 이이와 그의 부모 묘소가 있다. 매년 8월에 제사를 지낸다.

법원읍에 위치한 두루뫼박물관은 농업박물관의 관장을 역임한 강위수씨와 김애영씨 부부가 30여 년간 수집한 민속 생활용품을 모아 설립했다. 원삼국·삼국시대의 토기, 고려·조선시대의 도자기, 근세에 이르는 옹기 등 각종 민속 생활용구 1천5백여 점을 소장 전 시하고 있다. 넓은 마당에 세워진 초가집에서 느긋하게 역사를 되 짚어볼수 있다.

파주는 가는 곳마다 이색 박물관 천국

근처 경기영어마을 안에는 독특한 박물관이 있다. 이름도 '별난물 건박물관인데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전시물로 가득하다. 작은 규모지만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공간이다. 박물관 내부에는 온갖 과학완구들이 눈에 띈다. 아이 디어가 돋보이는 생활용품도 많다.

한옥을 개조해 만든 박물관은 1층 내부를 4개의 방으로 나눠 빛, 소리, 생활, 동작, 과학이라는 5개의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2백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 임진강 주변에는 가 볼 곳이 많다. 경기영어마을에 가면 별난물건박물관 등을 관람 할 수 있다.



위 장단콩마을은 껍질이 얇고 윤기가 흐르는 콩으로 유명하다. 마을에 가면 즉석에서 만든 순두부를 맛볼 수 있다. 아래 여름 임진강의 별미는 참게 매운탕이다

종이 넘는 전시품들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게 가까이 전시돼 있다. 박수 소리에 물길이 움직이는 분수는 아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춤 추는 물방울' 앞에 서면 손바닥에 물을 묻히고 청동 세숫대야의 양 쪽 손잡이 부분을 문질러 보자, 문지를 때마다 세숫대야 안의 물에 서 물방울이 튀면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신기루가 피 어오르는 3D 홀로그램 완구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동물 인형이 눈앞에 보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 팔을 허우적대는 아이들이 많다. 홀로그램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오목거울이 인형 모 양의 허상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해 주면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해 줄 수 있다.

이외에도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갈라 주는 도구, 머리 크기를 재 볼 수 있게 줄자가 새겨진 샤워캡 외로운 사람을 위해 만든 듯 남 자의 어깨모양을 본뜬 쿠션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상생활에 웃 음을 주는 전시물도 관람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 헤이리마을도 들러 보자. 헤이리는 다양한 문화 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 마을이다. 작가・미술인・ 영화인·건축가·음악가 등 예술인 회원들이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박물관·갤러리 등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었다. 특이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분위기가 이색적이다. 마을 동쪽의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지도와 안내 책자를 구할 수 있다. G 글과 시진·유철상 (여행작가)

찾아가는 길 자유로를 따라 달리다가 당동나들목으로 나간다. 적성 방면으로 5킬로미터 정도 달리면 우측에 화석정 이정표가 나온다. 화석정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한 후 유턴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면 화석정이 있다. 임진각과 황희 정승 유적지가 지척이다.

먹을 곳 장단콩마을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에서 내놓는 두부전 과 청국장, 순두부, 비지찌개 등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이곳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좋은 원재료를 쓰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반구정 맞은편에 있는 **반구정나루터집(☎031-952-3472)**은 임진강 장어 로 유명한 한옥집이다. 잘 지어진 한옥을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서면 장 어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뒷마당의 숯불에서 아주머니들이 바로바로 장 어를 구워 낸다. 담백한 장어에 시원한 동치미와 시큼한 고추절임을 곁들 일수 있다.

임진마을의 황복이 유명하지만 제철은 5월인 데다 잡히는 수량이 워낙 적 어 한여름에 맛보기는 쉽지 않다. 대신 참게와 빠가사리를 넣어 끓이는 매운탕이 별미다. 화석정 맞은편 임진마을의 진미식당(☎031-958-3321) 이 유명하다.

잠잘 곳 헤이리문화마을 인근 성동사거리 근처에 모텔이 몰려 있다. 오두산전망대 입구에 조**아텔(031-945-1155). 호텔미라지**

(031-954-0021), 힐하우스(031-945-9666) 등이 깨끗하고 최신식 시설 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 절약' 꼬마 전도사들

시너지스쿨 어린이기자단 해단식… 우수 학교는 지경부 장관 표창



"'세수나 양치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에너 지 절약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7월 26일 한전아트센터 전기박물관에서 시너지스쿨 어린이기자 단 해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부터 시너지스쿨 기자 단으로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 활동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 담당교사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시너지스쿨 기자단은 시너지 캠페인 시즌2의 일환으로 8개 학교 20명의 학생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과 에너지 절 약 실천표를 활용한 절약활동 등을 공유한 학생참여 프로그램, 해 단식은 어린이기자단의 그간 활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6월 21일 정전대비 훈련 등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 페인이 있어서 시너지 기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활동 학교로 선정된 대곡초등학교에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장 이 수여됐고 3명의 학생이 장관 상장을 받았다.

시너지스쿨 어린이기자단은 해단식 행사를 마친 뒤 전기박물관 을 견학했다. 전기박물관은 한국전력공사가 2001년 한국 전기의 역사를 정리해 보존하고 전기의 소중함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 해 개관한 곳이다. 이날 시너지 기자단의 투어는 전기역사관의 경복 궁 건청궁 점등식 모형을 구경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직접 익히고 널리 알려

"경복궁 건청궁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지 8년 뒤인 1887년 우리 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던 장소입니다." 한전아트센터 안내원 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은 1백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전기 역사가 신기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어진 전기미래관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한 정보와 대체·미래 에너지 등 현재와 미래의 에너 지 상황을 확인했다.

시너지(Seenergy)는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가 실시하고 있는 범국민적 에너지 정책 홍보 캠페인이다. SNS 등 온라인 뉴미디어 를 활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들의 생 활지침 등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캠페인 이름인 시너지 (see+energy)는 알기 쉽게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들 스스로



시너지 캠페인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온라인 콘텐츠로 작성하여 SNS를 활용해 전파하 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이다.

가 에너지 정책을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두 가지 의미 를 지니고 있다.

2012년 구성된 제2기 시너지 하우스(주부), 시너지스쿨 기자단(어 린이), 시너지 대학생기자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느낀 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주부들은 살고 있는 집을 에너지 절약 체계를 갖춘 시너지 하우 스로 개조하는 과정과 개조 후 전기절약 결과를 소개해 좋은 반응 을 얻었다.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은 일상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나 무의 이산화탄소 정화능력 관찰활동 등을 사진과 그림일기에 담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시너지 대학생기자단은 새로운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기획,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

글·이현민 인턴기자

시너지 블로그 http://seenergy.kr 시너지 트위터 @seenergy_mke 시너지 페이스북 fb.com/seenergy.mke





2012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기획재정부·KDI │후원│세계미래포럼·매일경제

응모기간: 2012, 8, 1 ~ 9, 17

공모 주제

▶ 100세 시대 대책, 양극화 해소 대책, 다문화 가정 증가의 영향과 대책, 중장기 에너지 대책, 인터넷 통신망 붕괴와 대책, 정보기술 접근성 격차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中 택1

- ▶ 2012년 9월 현재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 및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 고등학생 부문은 한 학교당 2편 이내로 제한 접수(학교장추천서 첨부)
- * 대학생·고등학생 부문 모두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참여자 모두 자격기준 충족 시)

응모 형태

▶ 논문(대학생), 논술(고등학생)

▶ 응모 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7일

▶ 응모 방법 : 온라인 응모(www.miraekorea.org)

▶ 결과 발표 : 2012년 11월중

시상 내역 □ 입상작 총 20편, 상금 총 2,400만원

	대학생 부문		고등학생 부문		
대 상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600만원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부상	
최우수상	1편	KDI 원장상, 상금 400만원	1편	KDI 원장상, 부상	
우 수 상	3편	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300만원	3편	후원기관장상, 부상	
장 려 상	5편	후원기관장상, 상금 각 100만원	5편	후원기관장상, 부상	

※ 고등학생 부문은 상금 없이 상장과 부상만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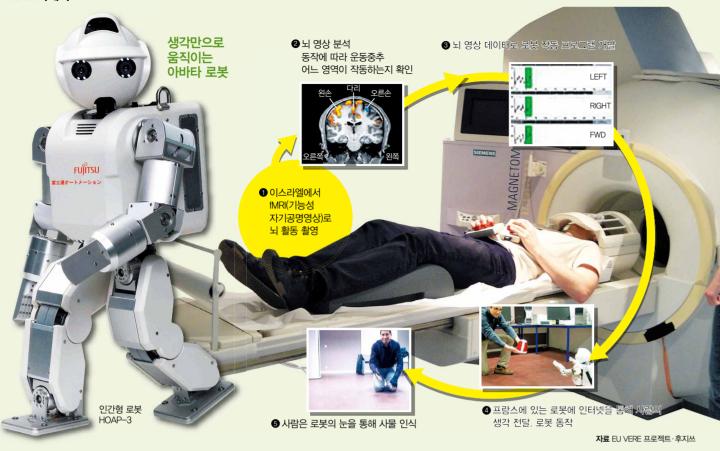
문 의

▶ KDI 경제정보센터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TEL: 02-958-4635 / E-mail: mirae@kdi.re.kr









이스라엘과 프랑스 연구진이 공동 개발 중인 아바타 로봇. 영화 〈아바타〉의 하반신 마비 주인공처럼 사람의 생각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을 움직이는 실험에 성공했다

기계의 반란… '매트릭스 세상' 실현되나

지능과 함께 로봇이 자기복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등장

공상과학영화가 그리는 미래에는 지능을 가지게 된 로봇이 인류와 대립한다는 설정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가상의 이 야기일 뿐 현실성은 없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로봇이 스스로 자기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인류와 기계의 전쟁이 더 이상 공상 이 아닐지도 모르게 되었다. 미래는 결국 터미네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일까?

□ 인간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성차별, 지역차별, 인종차별 등 무수한 차별을 통해 서로 구별 짓고 상대편을 억누른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차별은 철폐되기 마련이 다.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의 자손이 미국의 대통령에 오르게 된 것 은 이런 사회의 역동성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공상과학소설가들은 노예의 반란과 같은 사회의 변 화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기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이시켰다. 그리하여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만든 기계가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복제 가능성 현실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에서는 기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인류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기계들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인 간들은 생존을 위해 그들과 전쟁을 벌인다.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인류는 오늘도 끊임없이 기계 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일까?

세탁기, 식기건조기 같이 주어진 동작만을 수행하는 기계는 큰 문제가 없지만 로봇 청소기와 고성능 컴퓨터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아예 인간처럼 걷고 말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기도 한테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고 말한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 론도 있다. 이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고를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체스와 같이 복잡한 게임에서 이미 기계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도 존재한다.

지능이란 것이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두뇌의 전 기적인 신호처리 과정에 불과하며 기계의 디지털 추론 과정과 두뇌 속 신경회로의 정보처리 방식을 구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배 터리가 떨어졌을 때 경고등을 번쩍이며 전원 콘센트를 찾아 돌아다 나는 로봇과 먹이를 얻기 위해 미로를 헤매는 쥐는 모두 동일한 지 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의 자기복제 도구인 3차원 프린터 발명

지능에 더해 기계에 필요한 것은 자기복제 능력이다. 컴퓨터 바이러 스는 소프트웨어의 자기복제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자신이 장악 한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감염시키려고 노력하는 바이러스, 백 신을 피해 스스로 위장하는 스파이웨어, 더 많은 컴퓨터를 감염시키 기 위해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악성 코드는 이미 디지털 생명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인류와 기계의 전쟁이 공상과학일 수밖에 없다는 근 거로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기계가 스스로 자기복제를 할 수 없다 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3차원 프린터가 발명됨으로써 이 문제 도 해결되었다. 3차원 프린터는 3차원의 사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것이 일반(2차원) 프린터라면 3차원 프린터는 3차워 물건을 똑같은 모양으로 출력해 줄 수 있는 프리터이다.

3차원 프린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층촬영기와 같이 사물을 수평으로 분석한 다음 플라스틱 재료를 얇게 한 층씩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3차원 사물을 만들어 낸다. 컵을 3차원 프린터로 만든다 면 둥그런 원판 위에 1백분의 1밀리미터 두께의 원을 수천 개 쌓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장난감 부품, 시제품 모형 제작 등에 쓰였지만 프린터

자체가 커지고 재료도 다양해져 고무나 금 속뿐만 아니라 모래와 시멘트까지 사용함 으로써 주택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도 만들 어 내고 있다. 가격이 낮아져 보급도

3차원 프린터만

있으면 단종된 자 동차 부품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차원 프린터는 각종 원재료를 층층이 쌓아 나가면서 입체감 있는 물체를 뽑아 낸다.

실물이 없이도 설계도면만으로도 복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적 절한 재료를 사용하면 옷과 같이 변형이 가능한 사물을 만드는 것 도 가능하다 인터넷에는 이미 각종 제품의 3차원 설계도면을 공유 하는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갑 열쇠 도면이 유출되어 대량 복제되기도 했다. 스톱모션 애 니메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표정을 가진 인형의 머리를 사람이 일일 이 만들어야 하지만 3차원 프린터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 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실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창의력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차원 프린터로 3차원 프린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기계의 자기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상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아

어쩌면 3차원 프린터가 대중화한 미래에 지능을 가진 기계가 각성 하여 자기와 동일한 기계를 만들어 내려고 할지 모른다. 인간에게 불만을 품은 그 기계는 인간 몰래 부품 도면을 3차원 프린터에 전 송하여 복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다른 로봇을 조정하여 이를 조립할 것이다. 자기의 분신에게 사고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까지 이 식하게 되면 생명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복제를 기계 도 완벽하게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상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각성한 기 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 세상은 기계들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 다. 인간의 의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기계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인간과 기계는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인류는 결국 기계에게 사육되는 매트릭스의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공상이 현실이 되지 않 겠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G 글·김인성 (IT칼럼니스트)

갯장어는 여름 보양식의 '황제'

□ 다양한 장어류 중에서도 갯장어는 황제라 불린다. 같은 뱀장 어목에 속하지만 붕장어나 뱀장어에 비해 몸집이 크고 맛도 뛰어난 데다, 영양가까지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길이가 2미터에 달하는 대물이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던 갯장어에는 쇠고기보다 비타민A와 E, 칼슘 등이 수십 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콜레스테 롤 수치를 낮추어 각종 성인병에 효험이 있다는 DHA와 EPA 같은 불포화지방산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일본이름인 '하모'로 더 알려진 갯장어는 그래서 최고의 여름 보양식으로 꼽힌다. 이빨이 날카롭고 성질이 거칠어 뭍에 올려놓으면 사람을 물기도 하는데 하모라는 이름도 '물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개장어, 놋장어, 갯붕장어, 참장어, 이장어, 해장어, 노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견아려(大牙濾)'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입은 돼지같이 길고 이빨은 개와 같아서 고르지 못하다. 뼈가 더욱 견고하여 능히 사람을 물어 삼킨다"고 했다. 〈동의보감〉은 해만(海鰻)이란 이름으로 악창과 옴, 누창을 치료하는 약재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독도를 조선 땅이라 기록하고 있는 한 세기전의 일본책〈한해통어지침(韓海通海皆針)〉에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며, 등을 타서 건제품으로 만드는데, 전라도에서는 판로가 넓으나 경상도에서는 잘 팔리지 않고

값도 싸다'고 하였다.

또 1800년대 말에 출간된〈조선통어사 정(朝鮮通漁事情》〉에는 '뱀을 닮은 모양 때문에 먹기를 꺼려 일본인에 게만 판매하였다'는 대목도 나오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 가 치솟는 요즘의 사정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1905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업조사보 고〉도 갯장어를 '한국인으로서는 일고의 가치 도 없는 '생선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먹지 않던 갯장어를 먹게 된 지금 우리의 습성은 일제 강점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흔적은 통용되는 갯장어의 일본이름이나 일본식 요리명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일제의 잔재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은 미워도 맛있는 갯장어를 마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회도 좋지만 데침 회가 제일 맛있어

갯장어는 회도 좋지만 흔히 일본말로 '유비키'라 하는 데침 회로 먹는 것이 제일이다. 촘촘하게 칼집을 낸 살 조각을 갯장어 뼈와 무, 다시마 등을 넣고 우린 육수를 즉석에서 끓이며 잠깐 담가 흔들면, 갯장어에 열광하는 일본인들 표현처럼 '하얀 꽃이 피어오르는데' 엇구수하면서도 사근사근한 것이 입에 착착 감기다.

갯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아 자연산밖에 없는데, 전어나 전갱이 미끼를 일일이 손으로 끼운 기다란 낚싯줄을 바닷속에 늘어뜨리는 '연승주낙' 방법으로 잡는다. 전남 여수와 경남의 고성, 통영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데 제철인 요즈음 우리나라 전체의 하루 갯장어 어획량은 10톤 정도이다. 과거에는 잡히는 족족 일본으로 수출되어시 중 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들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국내 수요가 크게 늘어나 상당량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무분별한 남획 과 바다의 간척, 매립, 오염 등 으로 인해 어획량이 예정보

다 대폭 줄어 애호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갯장어요리 하면본고장인 여수 대경도의 경도회관이 떠오르

지만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마시리벌교참꼬막에서도 아쉬움

은 달랠 수 있다. **G**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겸손으로 '신분의 벽'을 넘다

○ '서얼'이란, 첩의 자식인 '서자'와 '얼자'를 말한다. 여기서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가 되고, 첩의 신분이 천인이면 '얼자'가 된다. 조선시대는 서자에게도 벼슬의 문호를 막고 있었으니 얼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얼자이면서도 판서를 거쳐 정승의 문턱까지 올랐 던 인물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반석평이 바로 그 인물이다.

반석평(潘碩枰·?~1540)은 시골 출신의 얼자였다. 실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석평은 천얼(賤聲) 출신으로 시골에 살았는데 그가 학문에 뜻을 두고 있음을 그 조모가 알고서 천얼임을 숨기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그 손자를 이끌고 서울로 와서 셋집에 살면서 길쌈과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 가며 공부를 가르쳤다.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거쳐 마침내 지위가 판서에 오르니 사람들이 그 조모를 현명하게 여겼다."

그렇다고 과거 급제 후에도 이 같은 신분을 은폐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급의 고비고비마다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됐지만 워낙바르고 겸손하며 청렴했던 처신으로 인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반석평은 무인기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는 문과 급제 이후 줄곧 함경도 쪽 방어를 맡는 관직에 있었다. 거기에는 출신 성분도 감안됐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의 명쾌한 일처리 능력이 조정에도 알려지고 중종은 특히 반석평을 아끼고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1530년에는 특진관에 보임되어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학문과 정치를 논하는 경연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중종은 반석평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관찰사로 연이어 임명한다. 한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관찰사를 지냈다는 것 은 그에 대한 중종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중종은 오랜 북방 및 지방생활을 해 온 반석평을 중용하기 위해 공조판서로 임명하자 신하들이 '중앙관리의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해 일단 공조참판에 제수한다. 이후 형조참판 한성부판 윤을 거쳐 마침내 반석평은 형조판서에 오른다. 이때도 조정 일각에 서는 전임 형조판서의 재임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하게 될 경우 재판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지 만 중종은 묵살했다.

이 무렵 반석평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가 전한다. 정작



종의 자식인 천얼로 과거에 몰래 급제 뛰어난 능력·청렴으로 중종의 신임 받아 중앙요직·관찰사 두루 거쳐 판서에 올라 출세했어도 예를 놓는 법 없어

그가 종살이를 했던 주인집의 아들들이 현달하지 못하자 반석평은 중종에게 글을 올려 자신의 벼슬을 깎아서 그만큼 주인집 아들들에게 줄 수는 없겠느냐고 호소를 했다. 이에 중종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반석평의 벼슬은 그대로 둔 채 주인집 아들들의 벼슬을 높여 주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반석평의 겸손한 성품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형조판서를 마치고 의정부 좌참찬에까지 올랐다. 이는 곧 정승에 오르는 전단계까지 승진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석평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허름한 복장의 양반을 보고서 급히 수레에서 내려 엎드려 절을 했다. 과거 주인집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겸손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저리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조모의 덕도 있고 머리 덕도 있었겠지만 결국 반석평의 현달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겸양하는 태도일 것이다. ⑤ 글·이한우(조선일보기획취재부정)



〈북극 허풍담 1~3〉

"내가 군대 있을때 … = 내가 북극에 있을때"



요른 릴 지음 · 백선희 옮김 열린책들·각권 9천8백원

□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자들이라면, 특히 전방 철 책선에서 겨울을 지내본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허풍에 공 감 가는 바가 많을 것 같다. 이 책의 무대는 북극, 그린 란드다. 북극이 어떤 곳인가? 사방을 둘러봐도 최소한 동료, 그것도 남자들만 몇몇 있을 뿐이다.

여름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엔 해가 뜨지 않는 날이 몇 달씩 이어지는 무료한 곳. 현실의 부재는 상상에 날 개를 달아주고, 그것이 '군대 허풍담'처럼 북극 특유의 허 풍담으로 남는다. 저자는 덴마크 출신 요른 릴(Riel·81). 열아홉 살에 그린란드 탐사에 참여했던 그는 북극에 반 해 16년을 내리 살았다. 릴은 그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를 소설로 썼다. 1권 표제작 '차가운 처녀'가 바로 상상이 허풍으로 진화한 대표적 경우 다. 여자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 게다가 혹 여자가 있더라도 '처녀'의 확률은 제로 수준이다. 이런 불모지에서 북극 사내 매스 매슨의 '구라'가 시작된다. 어느 날 그는 상상의 처녀 '엠마'를 창조해 낸다. "엠마는 말이야, 그래. 사과 도넛으로 만들어진 것 같 은 여자야. 엉덩이며 가슴이며 뺨이며 모든 게 그래. 오직 도넛으로만 말이야…" 매스의 구라를 듣는 친구들은 미칠 지경이다.

무료함에 지친 남자들의 거친 상상

몸이 단 동료 빌리암은 스티븐스 30구경 엽총과 실탄 15갑을 제안하며 그녀를 넘기라고 애걸한다. '거래가'는 치솟는다. 상상 속의 처녀일 뿐이지만 결국 빌리암은 실탄 5갑을 더 해 엽총과 실탄 20갑을 헌납하고 권리를 산다. 그런데 이 거래가 릴레이된다.

역시 1권에 실린 '남동풍'에도 북극 허풍이 가득하다. 겨울이면 동면(冬眠)하는 동물 들처럼 지치지도 않고 잠만 자는 밸프레드와 아직 북극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잠꾸 러기 고참을 못 견뎌 하는 안톤이 주인공. 어느 날 안톤이 젊은 욕정을 호소한다.

밸프레드는 권한다. "먼저 바지를 벗고, 남동풍을 마주보고 달려 봐. 최대한 빨리." 그러면서 어떤 다른 젊은이에게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효과만점이었다고 덧붙인다. 밸프 레드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안돈이 바지를 벗고 있다. 그리고 15분쯤 후 초췌한 얼굴로 돌아온 안톤. 밸프레드가 묻는다. "흠… 좀 괜찮아졌어?" 울먹이는 안톤의 대답. "바람 이… 멎었어요." 🕝 글·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임윤택 지음 | 해냄출판사 · 1만3천8백원



언제든 후회 없이 네 온 몸을 던져라! 울랄라세션 의 리더 임윤택이 꿈꾸는, 청춘에게 들려주는 열정 과 노력에 관한 마흔 가 지 이야기를 담았다. 결코 같은 순간에 머물지 않는 다, 도전은 즐겁게 받아

들이자, 갈고 닦지 않으면 최고란 없다. 긍정하고 또 긍정하라 등 그가 소개하는 삶의 지침을 통해 땀과 노력의 중요성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 드를 배울 수 있다.

굿모닝 사회인 야구

장이 지음 | 새잎 · 1만3천원



야구 전 준비운동 요령, 러닝, 캐치볼 자세 등 사 회인 야구의 기초를 알기 쉽고 유쾌하게 배울 수 있 는 최초의 사회인 야구

으로 옮겼다. 실제로 사회인 야구를 하는 만화가 '장이' 작가가 쓰고, 최고의 야구 감독인 '야신' 김 성근 감독이 감수했다.

수요일은 숲요일

김수나 지음 | 북노마드 · 1만6천원





한 쉼표 하나. 저자는 부 암동 백사실 숲, 북악산 성곽길 등 도심 안에서 고단한 삶을 충전하고 자 '힐링 스팟'을 소개한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느긋한 삶의 스타일과 '힐링 스팟' 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따뜻함을 더했다. 숲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진이 가득해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느

괴로움을 없어는 방법

글과 그림 · 최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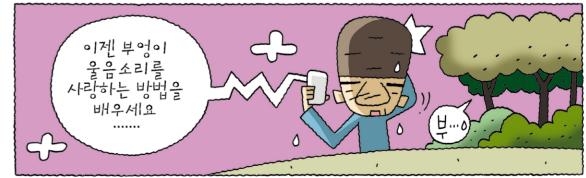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남을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98%는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마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 박지성(축구 선수)



별 하나에~ 시인과 뮤지컬이 온다

서울예술단, 8월 10~12일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공연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려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한국 인이 사랑하는 〈서시〉의 작가 윤동주 시인의 삶과 주옥같은 시가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는 시와 노 래, 안무를 엮어 잔인한 시대에 치열하게 살다 간 시인의 삶을 그 린다.

뮤지컬을 제작하는 서울예술단(이사장 김현승)은 한국적인 소재의 음악극과 무용극을 제작해 왔다. 올해부터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공연물에 밀려 높은 예술적 가치에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현대 가무극을 재창조해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 작품으로 선택된 것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유동주의 삶을 소재로 한 〈유동주, 달을 쏘다〉이다.

뮤지컬 〈영웅〉으로 잘 알려진 한아름 작가가 대본을 쓰고 뮤지컬 〈블루 사이공〉으로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대상을 받은 권호성 연출의 지휘 아래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이수한 정혜진 예술감독이 참여해 제작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4년 넘게 뮤지컬 〈바람의 나라〉 〈크리스마스 캐럴〉 등에서 호흡을 맞춰 온 박영수와 김혜원, 김형기가 주연으로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현실과 상상 넘나드는 무대 구성

정혜진 예술감독은 "왜 지금 윤동주인가"란 질문에 대해 "불안정한 시대, '우리 것'을 잘 모르는 시대에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고 답했다. 시인과 시를 뮤지컬로 담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위의 반대에도, "시인의 삶을 통해서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를 통해서는 우리 말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정신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한국 최고의 제작진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

무대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윤동주 시인이 등장하면 항상 '달'이 시인을 비춘다.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려고민한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존재다. 달이 둥글게 몸집을 키워나가다 파괴되는 무대만 바라보고 있어도 무대 위의 갈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암울한 시기, '시를 쓰는 것'이 자신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되는 〈윤동주, 달을 쏘다〉에서는 암울한 시기 청년 시인의 고뇌와 아름다운 우리 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 조국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고민했던 시인의 내적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가상의 인물 '이선화'도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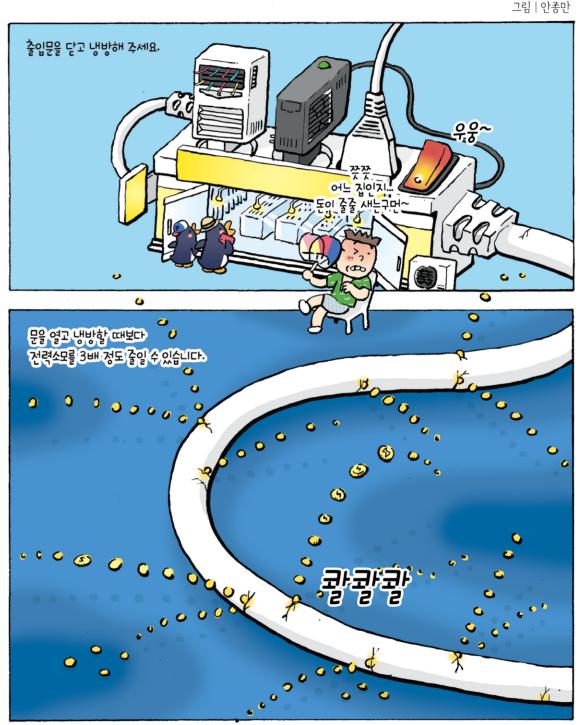
21개 노래와 군무 중심으로 맞춰진 안무도 시인의 열정과 고뇌를 그대로 전달한다. 윤동주 시인은 조선어 수업이 금지당했던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거치며 일본 땅에서 유학할 때도 우리 말로 말하고 읽고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말을 쓰는 것은 조선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기 꿈을 되찾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쓰는 일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청년으로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할수밖에 없었다.

극 중에서 윤동주 시인이 죽을 때까지 그리워했던 연인 이선화역을 맡은 배우 감혜원은 "수없이 연습했는데도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곤 한다"고 털어놓았다. 윤동주 역을 맡은 배우박영수 역시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 어떤 감정으로 노래해야 할까처음에는 고민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공감이 된다"고말했다. ⑤ 글·김효정기자

예매 및 문의 오픈리뷰 www.openreview.co.kr ☎1588-5212 예술의전당 SAC티켓 www.sacticket.co.kr ☎02-580-1300

콸콸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전력 과소비! 넘침은 부족함만 못합니다. 🥸



빵집 아저씨! 문 안닫아요?

■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에게 돌진한다. 누군가가 운전대를 돌려 피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고, 양쪽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먼저 피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된다. 저쪽에서는 겁쟁이를 닭 (chicken)에 비유하기 때문에 치킨 레이스 혹은 치킨 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현실에서 본 적은 없다. 왕년에 좀 놀았다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물론 글쓴이 주위에 진짜 논 애들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하간 치킨 레이스라는 건 그만큼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계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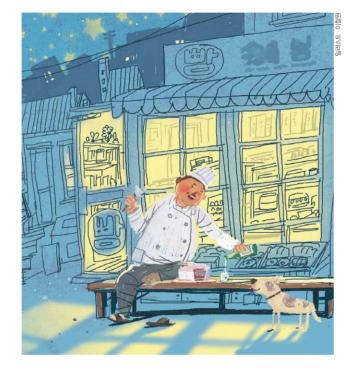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치킨 게임으로 D램을 주력으로 삼던 엘피다가 파산, 마이크론에 흡수 합병된 가운데 낸드플래시서 도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2위를 차지하 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30퍼센트 감축할 계 확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다. 워낙 경제에 문외한이라 뭔소란가 했는데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주도한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다"는 아랫줄을 읽어 보니 대충은 알 것 같다. 낸드플래시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죽기 살기로 경쟁한 끝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겼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더 깡이 세다는 거다.

일본만 해도 빵집은 이른 저녁에 문닫아

2년 전에 도쿄에 가서 한 달을 지낸 적이 있다.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2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뭐 그런 걸 좀 조사하러 갔었다. '시로카네'라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 방을 얻어지냈는데, 주위에 작은 식당, 빵 가게, 과일 가게 등이 있었다.

식당이야 조금 늦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빵 가게하고 과일 가게는 저녁 7시나 7시 반이면 문을 닫았다. 아침에 가서 빵을 사지 않으면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빵을 사기가 어려웠다. 과일 가게도 문 닫는 시간이 비슷해 보였다. 문득 '저러고 먹고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먹고살 수 있으니까 저



러는 거겠지?

그런데 서울에서 가끔 밤늦게 귀가하다가 집 근처 빵집에 들를 때가 있다. 밤 12시가 됐는데도 문을 열고 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진열대가 많이 비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문제 없다. 빵집 골목 앞에 있는 치킨집도 좀처럼 문을 닫을 것 같지 않다. 하긴 치킨집이야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밤늦게 찾아오는 단 한 명의 손님을 위해 심야영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빵집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치킨 게임도 아닌데 밤 12시를 넘겨 새벽 한두 시까지 문을 열어야 먹고살 수 있다는 것 이 안쓰러워 보인다.

시로카네에 사는 사람들처럼 좀 일찍 가서 빵을 사면 되지 않을까? 오후 7시 반이 너무 이르다면 한 9시쯤만 돼도 좋지 않을까?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빵집 아저씨도 일찍 문 닫고 좀 쉬고, 애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잠도 좀 자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⑤ 글·정재환(방송인·한글문화연대공동대표)





평상시 필수사항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체크

체크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합니다.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 (오후 2 ~ 5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비상시 대응요령

-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재난상황파악을 위한 TV, 라디오를 제외한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평상시 권장사항



실내냉방기기 온도는 한 단계 낮게 (강▶약) 설정합니다.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합니다.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 합니다. (전력사용▶가스사용)

체크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



TV ·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셋톱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체크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체크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강▶중)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 체크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합니다.

체크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뒷면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체크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체크

체크